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f Local Food on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學科

裴 奉 泳

2014年 2月

#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宋 昌 吉

裴 奉 泳

이 論文을 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12月

裴奉泳의 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 年 12月

# 목 차

표 목차 .....	iii
그림 목차 .....	iv
ABSTRACT .....	vi
I.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II. 로컬푸드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로컬푸드의 이론적 배경 .....	4
1) 로컬푸드의 개념 정의 .....	4
2) 로컬푸드의 특성 .....	6
3) 로컬푸드의 가치 .....	7
4) 로컬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사례 .....	7
2. 지속가능한 농업의 이론적 배경 .....	14
1)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정의 .....	14
2)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	16
3)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	17
4)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별 발전지표 .....	18
3.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관계 분석 .....	21
1)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선행연구 .....	21
2)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관계 분석 및 지표 도출 .....	25
III. 로컬푸드 생산자 실태조사 .....	28
1. 대상지 현황조사 .....	28
1) 조사대상지의 인구 및 농업의 일반현황 .....	28
2) 대상지 로컬푸드 관련 현황 .....	29
3) 대상지 분석 .....	32
2. 로컬푸드 생산자 설문조사 .....	34

1) 조사개요 .....	34
2) 설문지 구성 .....	35
3) 분석방법 .....	36
IV.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37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7
2. 사회적 부문의 변화 .....	39
1) 소비자와의 교류 현황 .....	39
2) 생산자와의 교류 현황 .....	41
3) 공동체 교류 현황 .....	42
4) 농업에 대한 의식구조 .....	44
3. 경제적 부문의 변화 .....	46
1) 농가수익구조 .....	46
2) 농산물 가격 적정성 .....	49
4. 환경적 부문의 변화 .....	51
5.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 .....	56
1) 부문간 상관관계 분석 .....	56
2) 분석결과 .....	56
6. 종합 분석 .....	60
V. 결론 및 시사점 .....	64
1. 연구결과 요약 .....	64
2. 시사점 .....	67
참고문헌 .....	69
부록 .....	73

## 표 목 차

표 II-1. 로컬푸드의 주체별 관점과 주요특징들 .....	4
표 II-2. 국내의 다양한 로컬푸드 정의 .....	5
표 II-3. 아야정 자연생태계농업 추진현황 .....	8
표 II-4. Cumbria의 협업 연결기관과 프로그램 지원내용 .....	11
표 II-5.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축(3E) .....	15
표 II-6.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	17
표 II-7.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및 효과 .....	18
표 II-8. 지속가능한 농업지표 개발의 영역 및 세부지표 .....	19
표 II-9. 우리나라 농업환경지표의 종류와 구성요소 .....	19
표 II-10. 문헌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별 지표 .....	20
표 II-11.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관된 주요 선행연구 정리 .....	21
표 II-12.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농식품체계에서 로컬푸드의 특성 .....	25
표 II-13.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 구성요소 .....	27
표 III-1. 완주군 로컬푸드 추진현황 .....	29
표 III-2. 완주군 로컬푸드 지원조례 요약표 .....	31
표 III-3. 완주군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지속가능성 부문 분류 .....	33
표 III-4. 연도별 완주군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자수 변화 .....	34
표 III-5. 로컬푸드 생산자 농업활동 변화 측정항목 .....	35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8
표 IV-2.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부문간 상관관계 행렬표 .....	57
표 IV-3. 사회적 부문 - 경제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	58
표 IV-4. 경제적 부문 - 환경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	59
표 IV-5. 환경적 부문 - 사회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	60

## 그 립 목 차

그림 II-1. 로컬푸드의 특성 .....	6
그림 II-2. 혼모노 센터의 유기농산물 출하자 명부 .....	9
그림 II-3. 바코드 라벨의 「은(銀)」 인증표시 .....	9
그림 II-4. 협업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민이력 .....	10
그림 II-5. Living Tisza 인증라벨이 붙어있는 상품 .....	10
그림 II-6. 제철꾸러미의 지역공동체와 소비자의 관계 .....	12
그림 II-7. 언니네 텃밭 오산공동체 .....	12
그림 II-8.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도 .....	16
그림 II-9. 지속가능한 농업의 범위 .....	16
그림 II-10.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간 연관 관계도 .....	26
그림 III-1. 전라북도 완주군 위치도 .....	28
그림 III-2. 완주군 지형도 .....	28
그림 III-3. 지역농업에서 로컬푸드 정책 대상과 특징 .....	30
그림 IV-1. 소비자와의 교류 여부 변화 .....	39
그림 IV-2. 소비자와의 교류 유형 변화 .....	40
그림 IV-3. 소비자와의 교류 빈도 변화 .....	40
그림 IV-4. 생산자간의 교류 여부 변화 .....	41
그림 IV-5. 생산자간의 교류 유형 변화 .....	41
그림 IV-6. 생산자간의 교류 빈도 변화 .....	42
그림 IV-7. 공동체로의 출하 여부 변화 .....	42
그림 IV-8. 참여 공동체 조직 출하 유형 변화 .....	43
그림 IV-9. 공동체로의 출하 빈도 변화 .....	44
그림 IV-10. 농업생산활동 보람, 자긍심 변화 .....	44
그림 IV-11.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 줄 의향 변화 .....	45
그림 IV-12. 로컬푸드 참여 농가 총 매출 변화 .....	46
그림 IV-13. 총 매출액 중 로컬푸드 수익액과 비율 .....	47

그림 IV-14. 경영 성과 변화 .....	47
그림 IV-15. 경영 성과 변화 이유 .....	48
그림 IV-16. 농업생산부문 지출 규모 변화 .....	48
그림 IV-17. 로컬푸드 참여로 지출 감소 체감 여부 .....	49
그림 IV-18.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과거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	50
그림 IV-19.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현재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	50
그림 IV-20. 영농방법 변화 .....	51
그림 IV-21. 토양관리방법 변화 .....	52
그림 IV-22. 병충해관리방법 변화 .....	53
그림 IV-23. 출하 농산물 작목 개수변화 .....	54
그림 IV-24. 외부 투입자원 절감 노력 변화 .....	55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ffects of local food direct sales on agriculture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change of agricultural activities after the launch of direct sal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farmers who supply produce to local food stores.

The findings from literature review, preliminary research and case investigation were used to develop a questionnaire that yields data for analysis. Wanju was selected because it was known as an exemplary leader for having operated successful local food direct sales business.

As a method for situational analysis on the agricultural-activity change, quantitative and correlational analyses have been made. Their results are drawn o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First, from the social perspective, relationships among farmers, consumers and communities are greater than previously reported. Besides, public opinion on agriculture has been positively affected.

Second, the farming operation begins to generate profits due to the properly-priced local produce, which is a positive indicator of local economy.

Third,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More and more farmers are now turning to environmentally-friendly farming.

Fourth, it is shown that al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have been demonstrated to b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Notably, a reduction in chemicals use was made possible by putting local farmers in close contact with their customers.

This study indicates that promotion of local food direct sales can overcome

the challenges small-scale family farmers face today. Farmers will be able to secure stable market access and improve their income. By implementing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of producing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smaller quantity, they will need fewer chemicals for farming. The shortened distance between producers and customers will make contribution to building a stronger community as well.

It is true that most experts who discus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tend to pay more attention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less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social trust. However, these research findings hint that close social relationships within a community as well as any offers of support may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의 활동 중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는 아마도 농업활동이 유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간에게는 식량을 공급하며 자연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순환시스템에 순응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활동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생태계의 순환시스템을 깨뜨리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농업이 가진 순기능을 잃어버린 이유로 윤과 허(2011)는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식량체계의 범주 속에서 곡물과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자재(농약, 비료 등), 종자산업과 농산물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농식품체계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력 없는 지역소농의 경제사정을 악화시켜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켰고, 그에 따른 타 직업군의 이탈로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 농지축소,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농 도입,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의 과다투입 등 대규모 단작중심의 외부 의존적 산업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켜 인류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 2008b; 송, 2012; 김, 2006; 홍 등, 2009; 현, 2009).

농업생태계의 위협은 경제적 부분만을 강조하는 다수확·고소득을 위한 자원 소모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방식에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존, 인류 건강,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순기능을 복원하는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 자연농업, 저투입농업 등의 실천농가들을 장려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sup>1)</sup>이란 개념의 등장은 국제기구나 국

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1987년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전문에서 개념을 공식화 함

가들로 하여금 지속농업이나 환경농업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sup>2)</sup>과 관련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 2006; 김과 김, 2002; 김 등, 2011).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의 정책적인 지원과 연구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농지의 규모화와 집단지화,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소득을 높이려는 관행적 농업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농산물의 지역 내부 거래를 통한 외부 투입자원의 사용 절감과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로컬푸드(Local Food)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정책연구와 사업이 추진되어 여러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도입되고 있고, 정부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허, 2006; 윤, 2008; 녹색성장위원회, 2010; 김, 2011; 허 등, 2011; 임, 2013).

하지만 로컬푸드를 대안적 유통경제시스템으로만 접근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국한시키고,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소를 대형유통마켓 중심으로 확장하는 시도와 상품 기획에 편리한 지역의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공급체계와 판매할 농산물 규모산정 등의 정책추진은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를 퇴색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윤, 2013; 나, 2013).

최근 여러 주체들이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농업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경우 자칫 로컬푸드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있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로컬푸드를 도입하려는 주체는 로컬푸드의 개념, 가치, 특성,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2) sustainable agriculture : 지속농업, 지속적 농업, 지속가능농업, 환경농업,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통일함

로컬푸드가 도입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새로운 방안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의 변화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마케팅, 유통시스템, 공공급식 서비스, 지역농업 정책, 일자리창출,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허 등, 2011).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의 변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있어서 로컬푸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자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 변화를 통하여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문헌조사, 선행연구조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 영역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인 완주군의 로컬푸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앞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생산자를 중심으로 농산물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 변화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농업활동 변화에 대한 빈도분석과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영역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II. 로컬푸드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로컬푸드의 이론적 배경

#### 1) 로컬푸드의 개념 정의

로컬푸드에 관한 일률적인 정의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분야별 보편적인 창조성과 공동체의 창의성에 따라 각 주체들이 지닌 속성이나 보는 관점에 의해 수정된 로컬푸드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 역, 2009).

이에 대해 허 등(2011)은 로컬(local)은 상대적 공간개념으로 푸드(food)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 식량, 가공식품 등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함축하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해석된다고 제시하였다.

각각의 주체들이 보는 관점은 <표 II-1>에서와 같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연계성과 지역상품의 판매, 농업 관련단체는 대안적 유통이나 농업시스템, 식품업 관련단체는 원산지 차별화와 특산물 브랜드화 등 각 주체의 관점별로 다양하게 로컬푸드를 해석하고 있다(허 등, 2011; 윤, 2008b; 김, 2007).

<표 II-1> 로컬푸드의 주체별 관점과 주요특징들

주체	주요 특징
정부, 자치단체	지역연계와 지역상품 판매 - 식품체계 주체들 간 지역연계 강화 강조 - 지역사회와 농민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강조
농업 관련단체	새로운 유통시스템 및 대안적 농업시스템 - 기존의 유통시스템 문제를 짚은 유통채널을 통해 해결 - 지역산 먹거리에서 친환경농업의 비중 확대 - 기존의 농업생산구조의 개편 및 농산가공산업 활성화
식품업 관련단체	지역 원산지 정보화를 통한 차별화와 특산물 브랜드화 -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재산권 보장과 원산지 정보제공 - 지역산 식재료로 만든 식음료 및 메뉴의 브랜드 개발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 관련단체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 지역 소비자의 사회 운동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의 캠페인을 통한 의식개혁 및 농촌개발, 거버넌스 등 - 식량자급과 자결권 확보를 통한 식량위기해결 및 식량안보 - 자원의 지역 순환을 통한 환경적 건강성 확보

자료 : 허 등(2011); 윤(2008b); 김(2007)의 내용 토대로 작성함

<표 II-2> 국내의 다양한 로컬푸드 정의

구분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
정은미 (2011)	- 일정 지역범위에 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로컬푸드가 갖는 지속가능성(안전성, 경제성, 환경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로 정의 - 로컬푸드 시스템은 지역차원의 유통시스템으로 정의
허남혁 등 (2011)	- 지역주체에 의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적 신뢰관계 속에서 생산, 가공, 유통, 조리, 판매되는 출처가 명확한 농식품으로 원재료의 지역성과 생산자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됨(원재료의 지역성, 주민에 의한 지역주체성, 지속가능한 방식의 지속가능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성)
완주로컬푸드 조례 (2013년개정)	-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완주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정의
원주푸드 조례 (2009)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다양한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 등의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정의
농촌진흥청 (2010)	- 50~10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생활권이나 인근 생활권역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로서 재배방법이 유기농법과 같거나 친환경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

자료 : 허 등(2011); 완주군(201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와 농촌진흥청(201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표II-2>는 국내 연구자와 기관에서 로컬푸드를 정의한 내용으로 정(2011)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농촌진흥청은 지역생활권 내의 친환경 먹거리로 정의하였고, 허 등(2011)은 지역성과 신뢰성 확보, 완주군이나 원주시의 경우 2단계 이하의 지역생산 먹거리 직거래 판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성’, ‘안전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지리적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것과 지속가능한 유기농산물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실제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자연친화적 방식의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생산자는 경제적인 이득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받아 건강의 지속가능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로컬푸드라 정의하고 있다(Kloppendburg et al., 1996; Trobe, 2002; Hinrichs, 2003; 충남발전연구원 역, 2009; 홍 등, 2009).

앞에서 언급된 로컬푸드의 개념과 정의들을 정리하면 물리적 거리는 짧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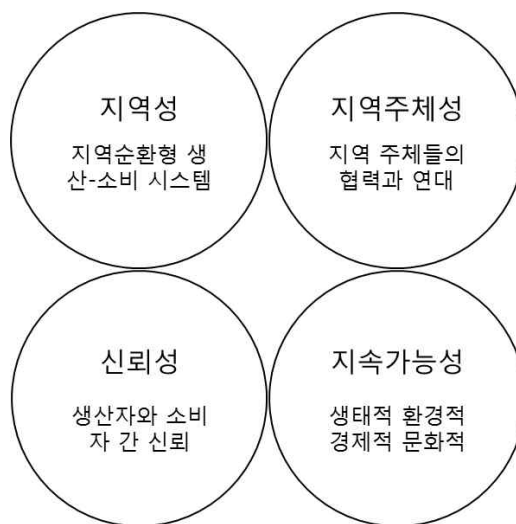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정의와 개념을 토대로 「지역의 주체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신뢰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와 직접대면 관계에서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등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위의 방법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로컬푸드 생산자』로 정의한다.

## 2) 로컬푸드의 특성

로컬푸드는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짧은 것을 지향한다. 이동거리 축소에는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 단축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농식품의 ‘자연적 거리(natural distance)’ 축소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kneen, 1993; 김, 2011).

로컬푸드는 <그림 II-1>에서와 같은 특성을 갖는데 첫째,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를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라는 ‘지역성’을 갖고 있다(농촌진흥청, 2010).

둘째, 지역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먹거리 자기결정권, 지역 주민과 환



<그림 II-1> 로컬푸드의 특성



경의 건강성 확보, 농업활동에 지역주민 참여, 지역과 지역의 연대, 지역 간 국가적 연대, 지역 내 다문화·다민족 연대라는 ‘지역주체성’을 갖고 있다(허 등, 2011).

셋째, 신뢰관계의 형성은 지역 농산물의 구입을 통해 지역농가의 경제를 지켜주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건강을 지켜주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성’을 갖고 있다(허 등, 2011).

넷째, 자원의 순환, 외부물질의 저투입,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친환경방식에 의한 농산물 생산으로 생태, 환경, 경제, 문화적인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다(정, 2011).

### 3) 로컬푸드의 가치

로컬푸드가 갖는 가치는 다음의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임, 2013; 허, 2006; 허 등, 2011). 첫째, 환경적 측면으로 농산물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연료사용의 감소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시키고,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농업생태계를 복원하는 장점과 가치를 가진다.

둘째, 건강적 측면으로 장거리 운송을 위한 화학물질 처리단계가 없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지역특산 음식의 다양성 및 고유성을 보존하여 공공보건을 증진하는 장점과 가치를 가진다.

셋째, 교육적 측면으로 상호작용에 의한 소비자가 농업생산(체험, 교류, 직거래, 농사교육)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농업을 이해하며, 생산자는 농법전환 시도를 위한 교육 참여 등 식량주권을 인지시키는 장점과 가치를 가진다.

넷째, 지역사회유지 측면으로 생산자의 경제적 안정은 지역농업을 유지시켜 지역의 공동화 방지, 일자리 창출, 재화의 지역 내 체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 4) 로컬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사례

#### (1) 일본 미야자키현 히가시모토카타군 아야정<sup>3)</sup>

아야정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자적 ‘자연생태계 농산물’ 인정기준을 도입하여 유기농업을 추진하였고, 생산

3) 농촌진흥청(2010) 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II-3> 아야정 자연생태계농업 추진현황

년도	추진현황	년도	추진현황
1973	한평 채소농장보급 사업 채소종자 배분 사업	1988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1976	지역 연대 푸른 하늘 도시 개설 농업지도센터 설치	1989	아야 수제 혼모노 센터 설치 유기농업개발센터 설치
1978	후쿠오카현 생협의 농산물직판 시행 자급비료 공급시설 설치	1997	지역자원순환 활용시설 음식물 활용 퇴비생산 시설 설치
1981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1983	유기농업 추진본부 설치	1998	농협 생물활성수·간이분뇨공장 설치
1985	미야자키 시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	2000	아야정 농업 안정 종합적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1987	퇴비 생산시설 설치	2001	유기 JAS 등록인정기관 등록

자료 : 아야정 홈페이지; 유기농업개발센터; 농촌진흥청(2010)

농산물을 아야 수제 혼모노 센터를 통해 판매하는 일본 로컬푸드 유기농업의 대표적인 사례지로서 규슈 미야자키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감귤농사 위주의 농촌지역이다. 하지만, 감귤중심의 단작농사 폐해로 농가 식단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평 채소 농장’이라는 자가소비용 채소재배 장려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표II-3>은 아야정의 자연생태계농업 추진현황으로 채소재배 이후 잉여채소에 대한 해결을 위해 ‘푸른하늘 도시’, ‘농산물직판장’, ‘아야 수제 혼모노 센터’ 등의 로컬푸드 판매소를 개설하였으며 유기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지도센터’, ‘유기농업 추진본부’, ‘아야정 자립경영농업 진흥회’, ‘유기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를 통하여 유기농업이 본격화 되었다.

추진주체로는 지역·의회·생산자·소비자로 구성된 ‘유기농업추진회의’, 집락조직인 ‘실천지부’, 품목별 부회 ‘생산조직’이 「유기농업 실천진흥회」로 조직되어 있고, 「유기농업개발센터」는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아야 수제 혼모노 센터’는 아야정 중심부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품, 공예품 판매 거점센터로 아야정에서 생산과 수집된 생산품만을 취급하며 출하자는 약 500명(2010년 2월)으로 이중 300명이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유기농업개발센터’는 아야정의 자연생태계농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마을, 미야자키현, 농협의 연대를 통해 운영하고, 농산물에 대한 인정(인증)으로는 「농지 인정기준」과 「생산관리 인정기준」에 의해 金, 銀, 銅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림II-2> 혼모노 센터의 유기농산물 출하자 명부<sup>4)</sup>



<그림II-3> 바코드 라벨의 「은(銀)」 인증표시<sup>5)</sup>

아야정은 농협, 지역, 생산자, 소비자, 행정기관,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과 경제 활성화 사례지이다.

(2) 헝가리 티서 강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규모 농가지원과 지역사회 협업<sup>6)</sup>

헝가리는 초국적 농식품업체의 시장장악과 농지 소유권 문제, 자본의 부족 등으로 농촌을 떠나는 농가가 증가하였고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에 까지 이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농민들의 협업이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 2006년 창설된 ‘Szvoet’ 협업기구를 들 수 있다.

‘Szvoet’ 협업기구는 티서 강 지역의 농작물 다양성 확보와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보존 홍보를 위해 지역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시스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농가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의 협업을 만들고 있다.

2008년 대형유통마켓의 원가이하의 체리, 사과 등 농산물 출하 강요 사건에 대항하여 ‘Szvoet’ 협업기구는 부다페스트의 각 농수산물 직판장에 ‘체리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로컬푸드의 가치를 인식시켰고, 나아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운영하고, 지역 판매장과 연계시켜 지역농민이 농업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나 병원에 소규모농가 생산우유 판매 제한, 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 및 직거래 판매 금지 등 직거래 판매를 방해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법

4) 자료출처 : [blog.naver.com/clientpark](http://blog.naver.com/clientpark)의 사진 인용  
 5) 자료출처 : [blog.naver.com/clientpark](http://blog.naver.com/clientpark)의 사진 인용  
 6) FAAN(2010); 농촌진흥청(2010)내용을 토대로 작성



<그림II-4> 협업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민이력<sup>7)</sup>



<그림II-5> Living Tisza 인증라벨이 붙어있는 상품<sup>8)</sup>

령들에 대해 협업기구 차원에서 변경요구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지역 농민, 지역가공업체, 유통관련단체, 농민장터(Farmer's market), 직판장, 도농교류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Living Tisza’ 라벨 도입을 통하여 로컬푸드 상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인증농산물의 원산지나 품질 관련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생산자 교류활동을 포함시켜 양자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다.

헝가리 티서 강 지역의 사례는 농민, 지역사회 활동가, 법률전문가, 직판장운영자, 지역소비자, 협력기구의 연합을 통해 협력과 연대로 로컬푸드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3) 영국 컴브리아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sup>9)</sup>

컴브리아주는 영국의 Lake District 국립공원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의 지역으로 축산업이 주를 이루고 소규모 농장에서만 곡식이나 채소를 경작하여 슈퍼마켓 유통체계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지역이다.

광우병 파동, 구제역 발생, 유전자 변형식품 논쟁으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유통마켓의 지배체제로 소규모 농가의 위기로까지 대두된 지역농업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농민들이 소비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자-소비자-소매상 간의 연결망을 재구축하고 농수산물 직판장, 직거래판매, 식품상자, 소매상, 소비자의 농장방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재-로컬푸드 시스템을 실현시켰다.

지역의 농장들은 유기농업과 생물역학(bio-dynamic)농업을 도입하여 전통방식

7) 자료출처 : elo tisza 홈페이지 사진 인용

8) 자료출처 : elo tisza 홈페이지 사진 인용

9) FAAN(2010); 농촌진흥청(2010) 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II-4> Cumbria의 협업 연결기관과 프로그램 지원내용

협업 연결기관	지원내용
Cumbria Organics	유기농 농가의 네트워크 지원 및 프로젝트 제공
Cumbria Farmer Network	실천 농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농가 네트워크 지원
Made in Cumbria	지역의 Farmer's Market 지원하고 있고, 'Meet the Buyer' 프로그램 운영 등 소규모농장과 기업의 바이어 연결 등의 지원
Cumbria Rural Enterprise Agency(CREA)	조언(advice)과 교육훈련 제공
Northwe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NWDA)	로컬푸드 관련 단체 기금 조성 등의 사업 지원
Cumbria County Council	지역 생산자의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례(기준) 제정
Growing Well	Organic 채소재배와 판매를 지원하는 단체 정신적인 지유를 위한 자원봉사자들도 참여
Howbarrow Farm	유기농채소 재배 및 꾸러미 상자 계획실행

자료 : FAAN.201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의 농업과 새로운 농업지식을 접목하는 RDP(Rural Development Program)를 통하여 유기농업 전환, 농가의 가공품생산, 농산물 직판장 기반시설, 농장체험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4>에서와 같이 협업기관의 리더(Leader) 프로그램들은 농수산물 직판장이나 유기농 소매상의 기반시설 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협업을 통해 생산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 상품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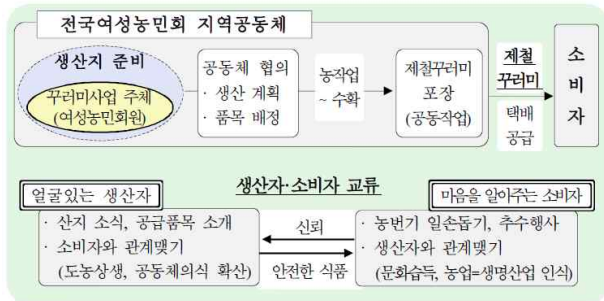
또한, 농가들은 소비자에게 농업방식 전수, 원예수업, 생산과정 참여 등의 교류를 시행하여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다.

영국의 컴브리아주 사례는 재-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신뢰관계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익을 창출시키고 있다.

#### (4) 국내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 사업<sup>10)</sup>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민회 5농가가 2009년부터 소비자 21가구와 제철농산물 택배 거래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15개 공동체의 140명 농민과 1,500여명의 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지역사회지원형농업(CSA) 방식의 사업으로 전국여성농민회

10) 정(2011)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그림II-6> 제철꾸러미의 지역공동체와 소비자의 관계<sup>11)</sup>



<그림II-7> 언니네 텃밭 오산공동체<sup>12)</sup>

가 총괄하고 여성농민회 소속의 지역공동체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은 소비자교육을 수료해야만 하고 인근농장이나 소비자의 고향 등 정서적으로 가까운 공동체를 연결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자가 지켜야 될 규정으로 출하 농장은 5백 평 이하의 텃밭으로 제한, 토종씨앗으로 농작물 생산, 제초제 미사용,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친환경인증은 배제<sup>13)</sup>,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결정, 공동체의 공동작업을 통해 출하해야 하는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후원과 지원활동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농업생산에 직접 참여를 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사업은 농촌공동체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상호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

11) 자료출처 : 정(2011), p. 33. 그림 인용

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13, 제철꾸러미 시골밥상이 배달됐습니다, 2013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뉴스 「농축수산물 신유통현장을 가다」 사진 인용

13) 소비자의 신뢰를 위한 방법이 인증이지만, 제도적 인증은 비용이 발생되어 가격상승 요인이 되므로 인증제도보다 상호신뢰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정, 2011)

#### (5) 시사점

앞 절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야정(농촌진흥청, 2010), 헝가리의 티셔 강 지역과 영국의 컴브리아(FAAN, 2010; 농촌진흥청, 2010), 우리나라 전국여성농민회(정, 2011) 등 로컬푸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는 지역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농업생산자들에게 안정된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여 소규모 농가에서도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로컬푸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시키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지원하고 있다.

넷째, 로컬푸드는 농식품의 세계화로 단절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들은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로컬푸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지역 농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1. 지속가능한 농업의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정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달한 ‘거대기술’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질서로 개편되면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교란이 환경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는 생산과 소비라는 물질순환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투입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자연생태계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분야를 넘어서 ‘농업의 공업화(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의 전환으로 이어졌으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품종개량, 농약·화학비료의 사용증가, 농업의 기계화, 대규모 단작경영 등으로 농업환경의 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유, 1998).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지역이나 한 국가를 넘어 지구생물 전체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바바라 워드(Babara Ward)가 처음 사용하였고, 1987년 ‘브란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제시되었다(이, 2006).

또한, 이(2006)는 그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과 ‘의제21(agenda 21)’을 통하여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과 부문별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농업의 환경 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농업의 유지를 위한 행동지침”이 제시되는 등 근래에 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이(2006)는 “아직까지 합의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능력



<표 II-5>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축(3E)

범위	주요 내용
사회적 평등(Equity) (정치와 사회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식량·교육·에너지·보건·물·위생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li> <li>- 함께하는 삶을 통한 균형</li> <li>-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평등</li> </ul>
환경적(Ecology) (자연자원과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세대를 위하여 환경유산자연자원의 소비 절감·오염·중지·자연 서식지 보존을 달성</li> <li>- 모든 생명체 및 자원의 생명부양 시스템 보전</li> </ul>
경제적(Economy) (경제성장과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나라도 뒤쳐지지 않아야 함</li> <li>- 어떤 지역사회도 뒤쳐지지 않아야 함</li> <li>- 적절한 경제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함</li> </ul>

자료 : 이(2006)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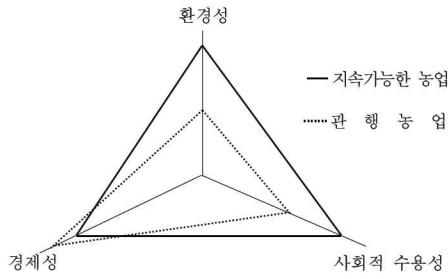
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 8, 43)”이라고 정의하였고, 김 등(2003; 이, 2006 재인용)은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생태계의 복원력과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자연자원의 기반 유지와 합리적인 이용을 향상시키며 국내적·국제적 형평성을 지향하는 진보”라고 정의 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 협의된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세계환경발전위원회(1987; 이, 2006 재인용)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적 맥락, 필요,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보다는 범주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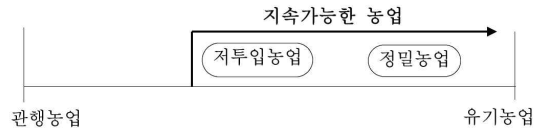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는 <표II-5>에서와 같이 사회적 평등(Equity) 측면, 환경적(Ecology) 측면, 경제적(Economy) 측면의 3가지 핵심영역으로 구분되어 진다(이, 2006; 김과 김, 2002).

김과 김(2002)은 지속가능한 농업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environmentally sound),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economically viable),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socially acceptable) 농업생산활동”으로 규정하여 생산과정을 통한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량 보전과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그림II-8>에서와 같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관행농업의 경우 사회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처음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관행농업보다 열위에 있으나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 안정화가



<그림 II-8>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도<sup>14)</sup>



<그림 II-9> 지속가능한 농업의 범위<sup>15)</sup>

되면 관행농업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김과 김, 2002).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유(1998)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회복함으로써 현대 농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정의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의 범위에 대하여 김과 김(2002)은 <그림 II-9>와 같이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투입재의 사용 정도에 따라 투입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투입 지속농업과 투입재의 사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기농업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하여 ‘의제21’ 기본이념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정립의 문헌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고, 생산자의 경제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농업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농업생산 활동」으로 정의한다.

## 2)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지속가능한 농업이 산업농업과의 차이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은 <표 II-6>에서와 같다.

환경적 측면에서 농장이나 지역외부의 농자재의 투입량을 줄이고, 농장이나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환경에 주는 부하를 최소화시킨다. 사회적 측면에서 주체들 간의 상호교류와 신뢰관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유기적인

14) 자료출처 : 김과 김(2002), p. 12. 그림 인용

15) 자료출처 : 김과 김(2002), p. 11. 그림 인용

<표 II-6>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지속가능한 농업	산업적인 농업
사회적 측면	건강성	- 인간의 건강을 위한 화학물질의 투입 제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생산량증가 및 이윤을 위한 화학물질 투입 허용
	노동력	- 지역사회的人们에게 일자리 제공	- 기계화로 인력 대체로 가능한 적은 수의 노동자 고용
	사회성	- 소비자-생산자 교류 활발(직거래 등) - 생산자-생산자 교류 활발(교육, 정보공유) -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활발(가공 등)	- 단기적인 이윤을 얻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에 농촌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안전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음
환경적 측면	농자재 투입	- 농약, 화학비료의 배제 또는 작은양 이용 - 자가채종을 통한 생물종 다원화 보존 - 비닐 등을 유기질 멀칭으로 대체	- 영농의 규모화 기계화로 화학농자재 의존적 - 다수확, 대량종자사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의존적
	에너지 사용	- 노동력 의존적으로 화석연료 소비 최소화 - 관행산업보다 60% 적은 화석연료 사용 - 농산물의 이동거리 축소로 화석연료 절감	- 대규모재배 및 기계화로 화석연료 의존적 - 전국, 전세계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유통에 따른 화석연료 과다 사용
	토양문제	- 유기물의 추가, 무경운, 저충격 경운으로 침식예방	- 집약적 경운과 토양피복의 결여나 유기물질들로 토양을 덮거나 투입하지 않음으로 오는 만성화된 침식 발생 - 화학자재 오남용으로 토양 오염을 발생
경제적 측면	지역경제	- 지역사업체로부터 공급품과 재료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	- 지역외부의 기업으로부터, 농기계, 농자재, 가축먹이 구입으로 비용 반출
	농가수익	- 직거래 및 상호관계에 의한 거래 활성화	- 시장경쟁체계에 의한 이득

자료: www.sustainabletable.org, Sustainable vs. Industrial: a comparison 내용을 토대로 정리

활동들이 늘어남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내부의 사업체로부터 공급품과 농자재 및 농산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직거래 및 상호관계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농가의 안정된 수익을 통한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시킨다.(권, 2006; 김, 2002).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업경영유지 부분’의 지속성, ‘농산물생산 부분’의 지속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소비 부분’의 지속성, ‘농업환경과 농업생태계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부분’의 지속성, ‘유한한 자원의 활용과 생태학적 부분’의 지속성, ‘주체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관계 부분’의 지속성의 특성을 갖는다(권, 2006; 김, 2002).

### 3)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가치는 <표II-7>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역 중심의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산업형 농업원리인 확일

<표 II-7>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및 효과

부문	가치 및 효과
<b>사회적측면</b>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	<b>산업농업의 원리인 확일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에 기초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추구</b> - 물질 및 경제의 순환을 왜곡시키는 외부투입 자재 사용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생명의 원리인 순환성·관계성·다양성을 복원하는 효과  <b>외부 의존적 발전 및 중앙 집중적인 방식과 달리 지역 내부의 자원순환과 다양성 증진</b> - 생산-유통-소비-폐기-생산이라는 순환의 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가 형성 - 물리적 거리인 지역의 범위는 축소되는 반면 사회적 관계의 거리는 확대되는데 이는 관계성의 당연한 요구로서 다양성의 회복과 증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효과
<b>환경적측면</b>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업의 실천	<b>저투입, 순환형, 유기농 등 영농방법 실천으로 환경부담 최소화</b> -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줄임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 - 유기물질을 토양으로 돌려주는 순환방식과 최소의 경운을 통한 건강한 토질 유지효과 - 기계농업방식의 탈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감소 효과
<b>경제적측면</b> 경제적으로 안정된 농업 활동을 통한 삶의 질 보장	<b>외부자원의 지출 감소를 통한 경제적 소득 증가</b> -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농자재 사용량 감축은 지출의 감소로 이어짐 - 지역이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활성화로 경제적 수익 확대  <b>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b> - 노동의 분배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효과 - 자본의 외부유출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김(2002); 김과 김(200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성을 배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물질, 노동력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환경적 측면으로 저투입 방식의 농업방식과 농업부산물의 농장투입 등으로 환경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유기농업 등 자연친화적 농업방식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하여 경제적측면의 안정된 농업활동이 가능해져 농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지속적 농업경영이 가능해지고 지역기반의 영농방식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김, 2002; 김과 김, 2002).

#### 4)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별 발전지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2001)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와 관련하여 “국가 구성요소의 중심축인 사회, 환경, 경제, 제도, 그리고 제도요소들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일부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

<표 II-8> 지속가능한 농업지표 개발의 영역 및 세부지표

영역	세부지표
경제적 측면	농업 생산성 / 농가 소득 농가자산과 부채비율 농가호 당 경지면적 / 농업부문 보조금 총액
환경적 측면	비료 사용량 / 농약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 수입사료 의존률 에너지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 용수 이용량 토양의 유기물 함량 / 환경농업 실천농가수
사회적 측면	농업노동력 비율 / 고령취업자(60세 이상) 비율 농업교육 정도 / 식량 자급률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분야 지출

자료: 김 등(2011); 농업부문 관련 국제기구 및 OECD 농업환경지표를 토대로 작성함

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영역별 발전지표는 <표II-8>에서와 같이 영역별 세부지표를 담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생산성, 농가소득, 농가자산, 호당 경지면적 등을 지표로 개발하였고, 환경 및 농업교육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표II-9>과 같이 국제기구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였고 정책 및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김 등, 2011).

<표 II-9> 우리나라 농업환경지표의 종류와 구성요소

지표종류	세부지표
토지	물 보유능력, 토지이용면적, 토지피복정도, 작물재배면적, 작물재배적지, 농지관리
토양	토양 물리성, 적성등급, 토양 비옥도, 유기탄소, 토양생물 다양성, 중금속 함량, 농약 잔류량, 양분함량, 토양침식
물	물수지, 수자원 부존량, 농업용수 수요량, 수리시설, 농업요수 화폐가치, 농업용수 수질, 수생생물 다양성, 농약성분 함량, 병원균
생물다양성	유전자원보존현황, 종다양성, 서식지다양성, 멸종위기종, 서식지행렬, 자연자본지표
농장	양분관리, 농약관리, 토양관리, 물관리, 경관관리, 환경친화적 농장관리
양분	양분수지, 가축밀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화학비료사용량, 양분흡수량
기후변화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성화 물질 배출량, 기상변화정보
경관	농업경관구조 및 기능, 금전적 가치, 물 보유능력, 토지사태 경감정도
농약	농약 품목 수, 출하량, 사용량, 농약 잔류량, 농약 위해성 평가
에너지	농업에너지 소비량,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총에너지 투입량, 에너지효율

자료: 김 등(2011), p. 70. 자료 인용

<표 II-10> 문헌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별 지표

영역	특성	주요내용
사회적 부문	건강성	-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투입을 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방식의 농산물 생산
	노동력	- 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인력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자리 제공
	사회성	- 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가 활성화 - 농업교육이나 농법공유 등을 통한 생산자들 간의 교류 활성화 - 마을이나 농업조직 단위의 공동 생산, 가공, 판매 등의 공동체 활성화
환경적 부문	농자재 투입	- 자가 채종을 통한 생물종 다원화 보존 - 비닐 등을 유기질 멀칭으로 대체 - 물질 순환 방식의 농자재 사용
	에너지 사용	- 노동력 의존적으로 화석연료 소비 최소화 - 일반농업보다 60% 적은 화석연료 사용 - 농산물의 이동거리 축소로 화석연료 절감
	환경농업	- 농약, 화학비료의 배제 또는 작은양 이용 - 유기물의 추가, 무경운, 저충격 경운으로 침식예방
경제적 부문	농가수익	- 직거래 및 상호관계에 의한 거래 활성화
	영농지출	- 농업생산에 들어가는 지출감소로 인한 농가경제 안정화
	지역경제	- 지역사업체로부터 공급품과 재료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 - 농산물 값의 외부 유출방지와 지역 내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시된 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별 지표를 <표 II-10>에서 같이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건강성, 노동력, 사회성의 ‘사회적 부문’, 농자재 투입, 에너지사용, 토양문제의 ‘환경적 부문’, 지역경제, 농가수익, 영농지출의 ‘경제적 부문’ 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관계 분석

### 1)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선행연구

로컬푸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6년 「로컬푸드」 번역서 출간과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창립을 시작으로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로컬푸드 정책제안, 농업경제학, 경영학, 지역개발학, 관광학, 외식급식학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허 등, 2011).

<표 II-11>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관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II-11>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관된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연구 내용	지속가능한 농업과 연관내용
강승진· 임경수 (2010)	<b>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방안</b> - 지역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에 적용 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제안	- 음식의 안전, 건강, 경제적 이익,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로 한정(GAP, 무농약, 유기농 인증) - CSA, 유통단계축소, 생산자-소비자 조직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역 내 일자리창출
김병혁 (2007)	<b>친환경농업활성화와 로컬푸드 운동의 연계</b> - 친환경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컬푸드와 연계를 통한 판매 방식과 공공급식 등의 공공영역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안	- 생산과 소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 - 이동거리가 짧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 가까운 지역의 농산물일수록 안전함 - 농민-소비자 상호간 교류협력이 필요 - 식량안보, 자연생태계보존, 수자원보존, 대기정화, 전통문화계승, 지역공동체 유지 등이 더 큰 가치를 가짐
김종덕 (2008a)	<b>석유에너지 위기와 대안식량체계</b> - 세계식량체계 속에서 석유에너지 위기가 식량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안식량체계의 특성과 형태 등을 논의와 구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제시	- 석유에너지 의존이 적어짐 - 가족농이 주체가 됨 -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 생산과 공급에 지역자원 활용 - 생산자-소비자의 연결이 이루어짐 - 유기농업(퇴비, 효소, 경종축산 결합) - 도시농업/시민농업/지역식량체계구축

<p>김주영 (2012)</p>	<p><b>로컬푸드 인증시스템에 관한 연구</b>  - 친환경 로컬푸드의 범위 및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절차 제도화  - 지역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발전방향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인 동시에 환경부하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li> <li>-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관행농의 1/2로 제한</li> <li>-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li> <li>- 생산자-소비자 교류 확대</li> <li>-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li> </ul>
<p>김철규 (2011)</p>	<p><b>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b>  - 로컬푸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소비자 면대면에 의한 직거래</li> <li>- 물리적거리의 축소는 환경오염을 줄임</li> <li>- 생산자-소비자의 신뢰 형성</li> <li>- 자연적거리의 축소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순환적 농업이 가능</li> <li>- 생산자-소비자의 연결이 이루어져야함</li> <li>- 생산, 유통, 소비체계가 지속가능성 원칙에 의해 재편</li> </ul>
<p>김철규· 윤병선· 김홍주 (2012)</p>	<p><b>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b>  - 현대사회 먹거리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와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점들을 사례로 들어 이를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의존적 농업의 붕괴</li> <li>- 식량주권의 시각에서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구조 재편</li> <li>-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생산</li> <li>- 단순유통 및 짧은 공급체계(이동거리)</li> <li>- 소비자의 먹거리시민으로 전환</li> <li>- 먹거리문제를 사회-생태학적 차원에서 접근</li> </ul>
<p>나영삼 (2011)</p>	<p><b>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업활성화 방안 연구</b>  -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조사를 통하여 지역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통합추진 모델의 정책수립을 위한 로드맵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지원</li> <li>- 소비자 대면접촉, 계약재배, 소비자 산지 방문, 로컬푸드 인증제도 등 환경농업 전환을 촉진</li> <li>- 다품목 소량생산</li> <li>- 직거래, 로컬푸드 시장개척</li> <li>- 품질기준보다 신뢰관계 확대</li> <li>- 3,000농가의 월소득 1백만원 경제수익</li> <li>-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li> </ul>
<p>안대성 (2009)</p>	<p><b>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방안 연구</b>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및 수단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판매는 농민의 유통 문제를 해결</li> <li>- 지속가능한 생산을 조직(기획생산, 조직화)</li> <li>- 생산농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등을 통한 정보 등의 공유</li> <li>- 소비자 조직화</li> <li>- 소비에 맞는 상품생산과 안정적 공급</li> <li>- 생산자와 지역농산물의 신뢰</li> </ul>



<p>윤병선 (2008)</p>	<p><b>세계농식품체계하에서 로컬푸드운동의 의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체계의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로컬푸드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을 진단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생산, 가공, 소비, 폐기 시스템</li> <li>- 로컬(local)은 땅을 회복하는데 기여</li> <li>-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음</li> <li>- 지역내 자원이 상호 돌봄과 책임감</li> <li>- 지역자원의 사용을 활성화 자기의존성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사람, 살아있는 생물 모두 소생시킴</li> <li>- 지역 내 농업생산 이후의 물질순환</li> <li>- 유해미생물, 유전자조작식품, 잔류농약, 생물테러에 최선의 방어책</li> <li>- 관계성의 경제를 통한 생산과 소비</li> <li>- 토지, 물 등의 이용을 통한 생산의 지속성과 식품의 안전성</li> <li>- 지역소비로 인한 환경부하 절감</li> <li>- 작물의 다양성으로 인한 농화학비료 사용안함</li> <li>- 영양분, 에너지 사용의 절감</li> <li>- 일자리 창출 및 휴경지 감소에 기여</li> <li>- 농산물가공효과로 부가가치가 높아짐</li> </ul>
<p>우영균 (2011)</p>	<p><b>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과 의의, 운동의 방법과 효과, 로컬푸드 운동의 실천 과제와 친환경농업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와 먹거리 문제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소비자 면대면에 의한 직거래</li> <li>- 물리적거리의 축소는 환경오염을 줄임</li> <li>- 생산자-소비자의 신뢰 형성</li> <li>- 자연적거리의 축소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순환적 농업이 가능</li> <li>- 생산자-소비자의 연결이 이루어져야함</li> <li>- 생산, 유통, 소비체계가 지속가능성 원칙에 의해 재편</li> </ul>
<p>이민수 (2013)</p>	<p><b>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개념, 사례, 장점,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중·소농 육성정책의 대안으로 로컬푸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발전전략 방법 등 정책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산물 소비증가로 일자리창출</li> <li>- 푸드마일리지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li> <li>- 농민과 소비자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최상의 농산물 제공노력 증가</li> <li>- 생산-유통의 축소로 유통과정의 오염 유입 방지효과</li> <li>- 토종작물의 보호효과 / 단작피해 방지</li> </ul>
<p>장현욱 (2013)</p>	<p><b>소비자 특성요인에 따른 로컬푸드 구매행동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공</li> </ul>	<p>로컬푸드 농산물 구입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도 및 신선도로 인함</li> <li>- 지역경제 이바지로 인함</li> <li>- 생산지를 알 수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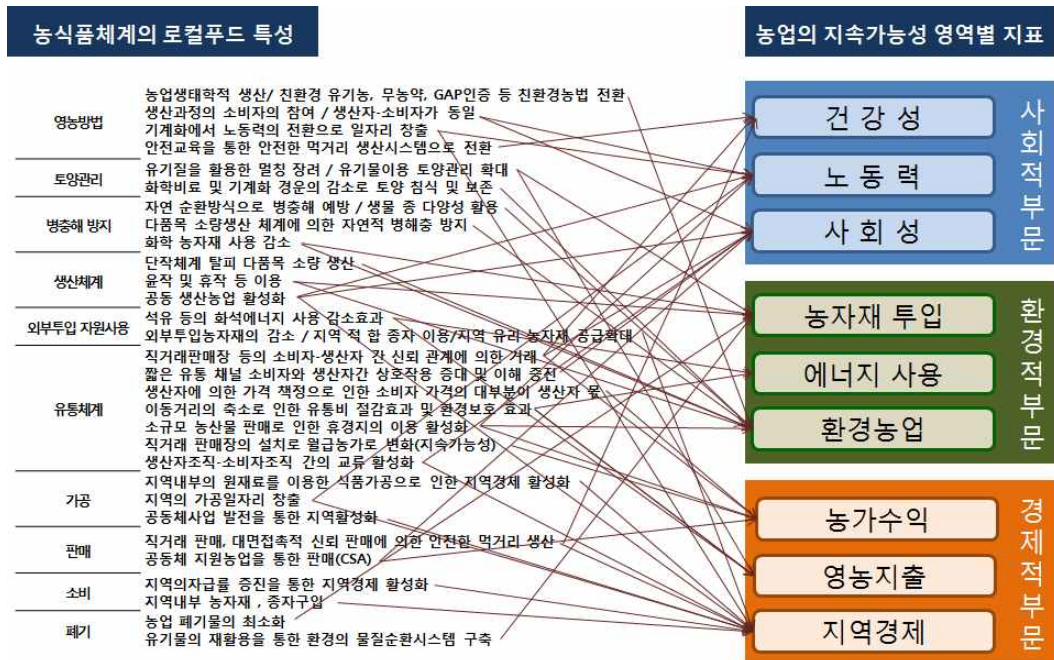
<p>임경수 (2013)</p>	<p><b>농, 살림을 디자인하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과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식량체계의 문제, 정책적 제도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들(대표적인 사례가 로컬푸드)을 제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가격 대부분을 생산자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li> <li>- 생산자-소비자의 상호관계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짐</li> <li>- 거리축소는 화석연료 절약과 환경보호</li> <li>-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작물종 다양성 확보와 그에 따른 농업방식의 전환으로 화학농자재 투입 절감</li> <li>- 지역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li> <li>- 생산자의 소득 안정과 식량에 지불하는 비용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순환됨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li> </ul>
<p>허남혁 등 (2011)</p>	<p><b>충남 로컬푸드 활성화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순환 식품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li> <li>- 광역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정책방향 및 정책모델 추진체계 제시</li> <li>-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순환식품체계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모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거리단축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li> <li>- 지역농업 유지로 환경적 기능 유지</li> <li>- 지역농업 재편성으로 농약, 비료 사용 감소</li> <li>- 소비자 농사체험 등의 생태교육 효과</li> <li>- 지역농업유지로 지역사회공동화방지</li> <li>- 소득의 지역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운송, 외부성 감축, 유기폐기물, 잔류물, 재생에너지에 의한 환경적 편익</li> <li>-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환경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있음</li> <li>- 아주 작은 양으로 생산되거나 특수한 맛을 지닌 산물의 판매처 창출로 생물 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의 과일/채소/가축 품종 개발 증진</li> <li>- 유기폐기물 관리, 물관리, 생산 잔류물 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과 같은 순환경제 체계와 연결됨</li> </ul>
<p>현혜경 (2009)</p>	<p><b>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의 로컬푸드 현황과 특성 탐색을 통하여 사회적 의미, 한계, 지역 사회 재구조화 문제 등을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조직(생협활동)의 유대를 통한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li> <li>- 학교 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업 및 소품종 환금작물에서 다품종으로 전환</li> <li>-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와 공동체 활성화</li> <li>-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지역화폐 등)</li> </ul>

## 2)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관계 분석 및 지표 도출

<표 II-12>는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과의 연관관계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토대로 로컬푸드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농식품체계에서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폐기의 각 단계들에서 로컬푸드의 특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12>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농식품체계에서 로컬푸드의 특성

농식품체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로컬푸드 특성
농업생산	영농방법	농업생태학적 생산 /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GAP인증 등 친환경농법 전환 생산과정의 소비자의 참여 /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동은 동일한 농업생산 활동 기계화에서 노동력의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토양관리	유기질을 활용한 멀칭 장려 / 유기물이용 토양관리 확대 화학비료 및 제초제사용 감소 기계화 경운의 감소로 양질의 토양생태계 확보
	병충해 방지	자연 순환방식으로 병충해 예방 / 생물 중 다양성 활용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에 의한 자연적 방지도입 화학 농자재사용 감소
	생산체계	단작체계 탈피하여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 전환 윤작 및 휴작의 자연친화적 방식 사용 공동 생산농업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외부투입 자원 사용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 사용 감소 효과 외부투입농자재의 감소 지역 적합 종자 이용 지역에 유리한 농자재 공급확대
가공	지역내부의 원재료를 이용한 식품가공으로 지역경제 이익효과 지역의 가공 관련 일자리 창출 공동체사업으로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유통체계	농민시장, 직매장 등 소비자-생산자 간 신뢰 관계에 의한 거래 짧은 유통 채널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작용 증대 및 이해의 증진 생산자에 의한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 가격의 대부분이 생산자 몫 이동거리의 축소로 인한 유통비 절감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 소규모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여 휴경기 사용률 증가 직거래 판매장 등의 판로가 만들어져 소득구조 개선 유통을 통한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간의 교류 증가	
판매	직거래 판매로 인한 농가수익 증대 대면 접촉적 신뢰 판매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공동체 지원농업을 통한 판매(CSA)로 인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가능	
소비	지역의 자급률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부 농자재 및 종자구입	
폐기	농업폐기물의 최소화 유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의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그림II-10>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성 간 연관 관계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로컬푸드의 특성을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문, 환경적 부문, 경제적 부문의 지속가능성 영역과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도출한 <표II-9> 농업의 지속가능성 영역별 지표와 <표II-12> 로컬푸드의 특성을 교차시켜 연관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림II-10>에서와 같이 교차결과 사회적 부문에 14개, 환경적 부문에 15개, 경제적 부문에 18개의 특성 인자들이 교차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로컬푸드가 지역에 정착되면서 생산자의 영농방법, 토양 및 병해충관리, 생산체계, 물질투입, 유통체계, 가공, 판매, 소비, 폐기 등 농업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연관관계를 토대로 <표II-13>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으로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을 설정하고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부문은 ‘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변화’, ‘농업활동의 가치변화’의 2개 구성요소로 세부지표는 소비자와의 관계형성, 지역 생산자들과의 내부관계망, 공동체 교류 등의 형성과 농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농업의 대물림에 대한

<표 II-13>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 구성요소

영역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관 구성요인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	사회적 부문	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와 관계 형성부문(소비자교류)</li> <li>- 지역 생산자 내부관계망 형성(생산자교류)</li> <li>- 영농을 통한 농촌지역 농업공동체 회복(공동체교류)</li> </ul>
		농업활동의 가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자긍심 고취(농업에 대한 의식)</li> <li>- 농업의 대물림(농업에 대한 의식)</li> </ul>
	경제적 부문	농가소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수익(농가수익 구조)</li> <li>- 농가 지출(농가수익 구조)</li> </ul>
		농산물 가치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가격 적정성</li> </ul>
	환경적 부문	농법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법</li> <li>- 토양관리 방법</li> <li>- 병충해방지 방법</li> <li>- 생산체계</li> <li>- 외부자원 활용방법</li> </ul>

의식 등 5개 연관지표를 도출 하였다.

경제적 부문은 ‘농가소득 변화’, ‘농산물가치의 인식변화’ 등 2개의 구성요소와 농가수익, 지출 등 2개의 연관지표를 도출하였고 환경적 부문은 농법의 변화 1개의 구성요소와 농법, 토양관리방법, 병충해방지방법, 생산체계, 외부자원 활용방법 등 5개 연관지표를 도출하였다.

### III. 로컬푸드 생산자 실태조사

#### 1. 대상지 현황조사

실태조사 대상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를 선정하였다.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구모 1ha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업인이 70%를 초과하고 고령농업인이 35%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중 68%가 자가소비로 농산물을 처리하던 지역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완주군(2013)의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는 농업방식으로 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로컬푸드의 정착과 농업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운영하고 있기에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지의 인구 및 농업의 일반현황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북부에 위치하여 북·동·남쪽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서쪽은



<그림III-1> 전라북도 완주군 위치도



<그림III-2> 완주군 지형도

평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13개 읍면(11개 면, 2개 읍)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완주군과 전주시는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완주군 인구수는 86,766명(35,003세대)이며 고령화율은 18%로 국내 11%보다 높은 고령사회이다. 전체 농가수는 8,829호며 이중 1ha 미만 소규모의 농가수가 6,723호(76%)에 이른다. 지역의 주요작목은 쌀, 대추, 생강, 감, 수박, 배, 한우, 포도, 표고버섯, 양파, 마늘, 당조고추 등이며, 친환경 인증 농가는 647농가로 유기농 78호, 무농약 331호, 저농약 225호 등의 특성을 갖는다(완주군, 2012).

## 2) 대상지 로컬푸드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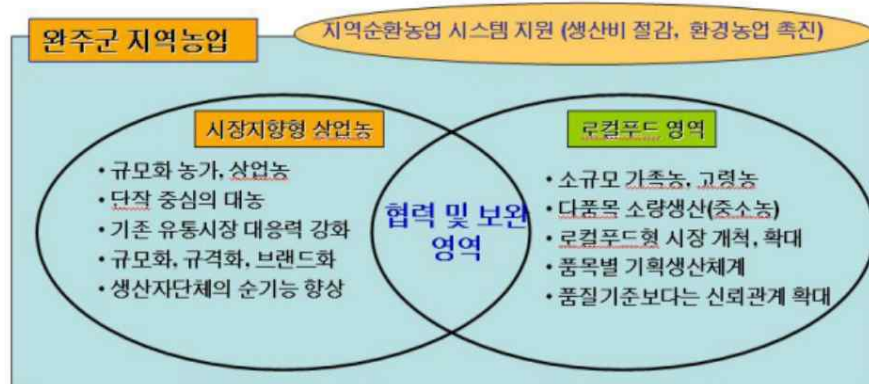
완주군의 로컬푸드 체계는 행정-지원기관-생산자-지역공동체-소비자 간 연계를 통한 주체 간 협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라는 확실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작목반 등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100여 가지의 품목을 연중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추진현황은 <표Ⅲ-1>에서와 같이 2008년 8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수립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건강한밥상 꾸러미상자’ 공급을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국내 1호 직매장인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완주군과 전

<표 Ⅲ-1> 완주군 로컬푸드 추진현황

추진년월	주요 내용	추진년월	주요 내용
2008. 08.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수립	2010. 10.	건강밥상꾸러미 공급 시작
2009. 05.	완주로컬푸드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	2011. 06.	완주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개발
2009. 06.	완주로컬푸드 대토론회 추진	2011. 12.	인증 CI개발 및 인증상표사용관리 규칙제정
2009. 07.	로컬푸드 활성화 T/F팀 조직 구성	2012. 02.	완주 로컬푸드스테이션 추진
2009. 09.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2012. 04.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009. 12.	로컬푸드 추진 4개시 군 연석 회의	2012. 06.	완주로컬푸드 인증시스템 시행
2010. 05.	로컬푸드 영농법인 건강한 밥상 발족	2012. 10.	전주시 효자동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개장
2010. 07.	완주군농촌활력과 로컬푸드전담 행정조직개편	2013. 11.	완주군 구이면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개장
2010. 10.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2.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설립준비

자료 : 나(20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생산과 유통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창출
- 가족소농 및 고령농의 정책소외 극복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
- 소비자 대면을 통한 지역농식품에 대한 신뢰도 증진, 지역마케팅 효과
- 마을별 품목별 공동생산 장려를 통한 협업체계 확산, 지역사회통합에 기여

<그림Ⅲ-3> 지역농업에서 로컬푸드 정책 대상과 특징<sup>16)</sup>

주시를 포함하여 3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3개의 직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그림Ⅲ-3>과 같이 시장지향형 상업농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 소규모 가족농과 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 영역을 구축하고 지역농업의 전체적인 생산과 유통의 간격을 줄여 지역순환농업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나, 2011b).

또한, 완주군은 ‘완주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Ⅲ-2>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 현황으로 건강한 밥상, 용진농협 직매장, 해피스테이션(전주점, 모악산점) 3개의 직매장에 2013년 현재 780여 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다(나, 2013).

16) 자료출처: 나, 2011b, 지역혁신과 로컬푸드, 지속가능한농업으로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체토로 회, p. 44.



<표 III-2> 완주군 로컬푸드 지원조례 요약표

구분	세부내용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li> <li>- 농촌 환경 보전과 주민 건강증진</li> <li>- 식량주권 확보</li> </ul>
로컬푸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방법을 이용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방법활용</li> <li>·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구온난화 방지</li> <li>· 생물의 다양성 확보</li> </ul> </li> <li>- 완주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최소유통 단계를 통한 공급</li> </ul>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상생 순환관계 확립 목적으로 농촌경제자립, 주민식량주권 확보</li> <li>- 지역내 다품목 소량생산하는 가족소농과 지역공동체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li> <li>-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 통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 노력</li> <li>-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지구 환경보전 기여</li> </ul>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li> <li>- 농업인 생산조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강화</li> <li>- 지역순환농업 : 친환경자재, 농가이력관리, 토종종자 보존사업</li> </ul>
통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및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li> <li>-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li> <li>- 식문화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li> <li>- 통합물류센터, 전처리시설, 전통발효식품단지, 프레스푸드단지, 교육홍보·센터, 공공지원센터 등 시설 설치</li> <li>- 공공(학교)급식사업</li> </ul>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농가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li> <li>- 인증센터 설립</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 다수 지역농민 참여, 지속적 지역공동체 활성화</li> <li>-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li> <li>- 소농 조직화</li> </ul>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로 확장</li> <li>- 농업과 식품 산업간 연계성 강화</li> </ul>
로컬푸드소비촉진 활성화 (직판,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장 개설 운영</li> <li>-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한 밥상꾸리미사업 활성화</li> <li>- 소포장, 포장박스, 직배송, 생산자-소비자 사회적거리 단축의 교류사업</li> <li>- 로컬푸드 건강한 학교밥상 제공</li> <li>-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li> <li>- 보육시설,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우선 사용 노력</li> </ul>
참여주체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주군 : 식생활 교육, 홍보, 자료조사, 인력양성</li> <li>- 소비자 :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소비</li> <li>- 생산자 :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li> </ul>
국내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부족시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 후 품질보장 먹을거리 조달</li> <li>-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인력기술교류, 활동 참여</li> </ul>

자료 : 완주군(20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출하 직매장에서 57개 항목의 간이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고, 2단계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주일에 2회씩 10가지 품목에 대해 246개 항목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외부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나, 2013).

로컬푸드 통합인증제도를 통해 수질검사, 농약검사, 토양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나, 2013).

완주군 로컬푸드의 특징은 소비자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건강한 밥상 회원과 지농소 회원, 직판장 회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탐방 및 체험행사, 직거래 장터 체험행사, 식생활교육 등을 통하여 단순한 농산물 구입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혀서 소비자로 하여금 함께 지역 농업 발전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있다.

### 3) 대상지 분석

완주군 로컬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정책지원을 토대로 지역주민,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업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체계를 도입하고, 주민교육, 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및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지역이다.

지역의 공동체의 조직을 결속하여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규모 가족농 중심으로 생산을 기획하여 친환경적 농업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을 제도화시킴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표Ⅲ-3> 완주군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지속가능성 부문 분류

구분	세부내용	지속가능성 부문 분류	
건강 복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상생 순환관계 확립 / 지역공동체 운동</li> <li>-주민 건강증진</li> <li>-식량주권 확보</li> <li>-주민식량주권 확보 목표</li> <li>-다품목 소량생산 특징인 가족소농</li> <li>-지역공동체 참여 보장</li> <li>-공동체 활성화 기여</li> <li>-식생활교육/안전·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li> <li>-육성 지원계획(5년)</li> <li>-전용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교육 및 생산자-소비자 교류활성화</li> <li>-캠페인, 홍보, 교류 협력사업</li> <li>-다품목 소량생산 조직화</li> <li>-농민가공조직화 방향</li> <li>-민간단체 위탁운영</li> <li>-친환경지원,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특수목적 기획생산단지, 노인복지 기획생산단지</li> <li>-학교급식지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노력</li> <li>-보육 / 복지시설 우선사용</li> <li>-식품, 음식점 인증</li> </ul>	사회적 부문
가공 유통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완주 지역 생산가공</li> <li>-직거래/2단계 이하 유통단계</li> <li>-농업인의 소득 안정</li> <li>-농촌경제자립</li> <li>-기획생산 지원</li> <li>-농민장터 개설</li> <li>-농식품산업시설 설치, 농식품 소기업 유치</li> <li>-로컬푸드판매업소 차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농민가공센터 설치</li> <li>-직거래 유통활성화</li> <li>-가공단지 조성가능</li> <li>-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li> <li>-통합물류센터, 전처리센터, 전통발효식품단지, 프레스푸드단지, 교육센터 시설설치</li> <li>-전문판매장 설치 지원</li> <li>-공동체지원농업 지원</li> </ul>	경제적 부문
농업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농업</li> <li>-농촌환경 보전</li> <li>-지속가능한 방법</li> <li>-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인증지원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거리 이동거리 최소화</li> <li>-저탄소 녹색성장 실현</li> <li>-지구 환경보전 기여</li> <li>-안심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li> </ul>	환경적 부문

자료 : 완주군(20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표Ⅲ-3>은 완주군이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목들을 2장에서 도출한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부문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건강·복지·정책 등의 대부분 내용은 사회적 부문과 관련이 있었고 가공·유통·판매 등의 내용은 경제적 부문과 농업생산은 환경적 부문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로컬푸드 생산자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본 실태조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를 중심으로 직매장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의 변화를 통하여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사회적 부문, 환경적 부문, 경제적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부문으로 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변화와 농업활동의 가치 변화를 경제적 부문에는 농가소득 변화와 농산물 가치변화를 환경적 부문으로 농법의 변화와 관련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와 훈련된 면접원 1인에 의해 대인면접조사법을 통해 질문 후 조사자 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20일 ~ 23일(4일간) 용진농협직매장과 전주시 효자동 직매장에서 시행하였으며 대상으로는 1차 농산물을 1년 이상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로 하였다.

<표Ⅲ-4>와 같이 1년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수는 대략 750여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개 직매장에 복수로 출하하거나 단체로 출하하는자, 2차 가공품 출하자를 제외한 1차 농산물 생산자는 대략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전체 78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직매장에 출하한지 1년 미만이라고 응답했거나, 기입오류로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한 6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 Ⅲ-4> 연도별 완주군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자수 변화(가공품 및 단체 출하자수 포함)

구 분	2010년 10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13년 6월	13년 12월
합계	33명	139명	757명	1,509명	3,409명
건강한 밥상	33명	139명	147명	79명	105명
용진농협 직매장	-	-	150명	250명	300명
효장동 직매장	-	-	460명	1,180명	1,502명
모악산 직매장	-	-	-	-	1,502명

자료 : 완주군, 완주로컬푸드(주), 건강한 밥상에서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중복출하 포함)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 영역인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의 측정을 위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출하 이전과 이후를 비교 측정을 위하여 동일한 질문을 출하 이전과 출하 이후의 시점에서 질문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부문의 측정항목은 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변화 8문항(출하이전4, 출하이후4)과 농업활동의 가치변화 6문항(출하이전3, 출하이후3)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부문의 측정항목은 농가소득변화 12문항(출하이전5, 출하이후7)과 농산물 가치변화 4문항(출하이전2, 출하이후2)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적 부문의 측정항목은 농법변화 관련 10문항(출하이전5, 출하이후5)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사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농업특성 관련 11문항 등 총 51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구성내용 및 척도유형은 <표Ⅲ-5>와 같다.

<표 Ⅲ-5> 로컬푸드 생산자 농업활동 변화 측정항목

영역	구분	내용	문항수	척도
사회적 부문	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변화	- 소비자와 관계 형성부문 (소비자교류 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비율척도
		- 지역 생산자 내부관계망 형성 (생산자교류 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비율척도
		- 지역 농업공동체 활성화 (공동체교류 전후 각2문항씩)	4	명목척도, 비율척도
	농업활동의 가치 변화	- 농업의 자긍심 고취 (농업의식변화 전후 각1문항씩)	2	리커트 5점 척도
		- 농업의 대물림 (농업의식변화 전후 각2문항씩)	4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
경제적 부문	농가소득 변화	- 농가 수익변화 (전후 각3문항씩+현재시점1문항)	7	명목척도, 비율척도
		- 농가 지출변화 (전후 각3문항씩+현재시점1문항)	5	비율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농산물 가치변화	- 농산물 가격 적정성 (전후 각2문항씩)	4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
환경적 부문	농법의 변화	- 농법 변화(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 토양관리 방법 변화(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 병충해방지 방법 변화(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 생산체계 변화(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비율척도
		- 외부자원 활용방법 변화(전후 각1문항씩)	2	명목척도
일반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결혼, 교육, 거주지	5	명목척도
	농업특성	- 농사경력, 농사규모, 영농인원, 귀농여부, 직매장출하일시, 농업교육	6	명목척도, 비율척도

### 3) 분석방법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농업의 일반특성,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항목별 변화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별 빈도와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부문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비교작업을 위해서는 변수들의 일반화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기에 이를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자의 출하 이전과 이후의 변화경향을 수치화하여 연속형 변수로 일반화작업을 시행하였다. ‘로컬푸드 영향으로 지출감소’ 변수는 과거와의 비교대상이 아니기에 제외하였으며 일반화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소비자와의 교류 횟수’, ‘생산자와의 교류 횟수’, ‘공동체 교류 횟수’, ‘농업 소득 변화’, ‘농업생산 지출비 변화’, ‘농산물 품목수 변화’ 등 6개 항목의 비율 척도는 현재와 과거의 차이 값을 직접 사용하였다.

둘째, ‘농업의 자궁심고취’, ‘농업의 자녀 대물림 의사’, ‘농산물 가격 만족도’, ‘경영성과변화’ 등 4개 항목은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고 위와 같이 현재와 과거의 차이 값을 사용하였다.

셋째, ‘토질개선 방법변화’, ‘병충해방지 방법변화’, ‘외부자재 절감 노력변화’, ‘영농방식 변화’ 등 4개 항목은 변화 유무를 다음과 같이 수치화 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과거’에서 ‘현재’의 변화가 없으면 ‘0’, 긍정의 변화 ‘1’, 부정의 변화 ‘-1’을 부여하였다. 별도의 가중치 대입은 하지 않았다.

## IV.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농업특성은 <표IV-1>과 같이 분석되었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61.3%, 여성 38.7%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대가 41.9%로 가장 높았고 50대, 40대, 70대 이상, 40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5.5%로 가장 높았고 초졸 이하, 중졸,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로는 용진면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서면, 봉동읍 등의 순이었다. 용진농협 직매장의 경우 용진면 주민들을 출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용진면 거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특성으로는 농사경력이 '40년이상' 40.3%로 가장 높았고, '30~40년미만'도 19.4%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30년 이상 농사경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귀농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원주민(82.3%)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인원수로는 2명이 경작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로 2~3명의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로컬푸드 장소(복수응답)로는 효자동직매장 48명, 용진농협 직매장 38명, 모악산직매장 26명, 건강한밥상 13명이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개소 출하가 41.9%로 가장 많았고, 1개소, 3개소,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참석은 7회 이상 69.4%로 가장 많았으며, 5~6회, 3~4회 순으로 대부분이 3회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이동거리는 생산자의 절반이상이 30km 이내로 나타났고, 농경지 규모로 '밭' 보유자 59명 중 3천평 미만 53%, '논'보유자 10명 중 2천평 미만 60%, '과수원'보유자 12명 중 2천평 미만 60%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소규모의 농장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내 용	빈도(명)	구성비(%)	변 수	내 용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성	38	61.3	영농 인원	1명	3	4.8	
	여성	24	38.7		2명	50	80.6	
연령	40세미만	2	3.2		3명	8	12.9	
	40~50세미만	8	12.9		4명	1	1.6	
	50~60세미만	21	33.9	로컬푸 드출하 장소수	1개소 출하	19	30.6	
	60~70세미만	26	41.9		2개소 출하	26	41.9	
	70세이상	5	8.1		3개소 출하	9	14.5	
결혼 여부	기혼	55	94.8		4개소 출하	8	12.9	
	미혼	4	6.9	출하 개월수	12개월~18개월미만	27	43.5	
	기타(이혼,사별등)	3	5.2		18개월 이상	35	56.5	
교육 수준	초졸이하	17	27.4	로컬푸 드생산 자교육 횟수	전혀없음	0	0.0	
	중졸	15	24.2		1~2회	1	1.6	
	고졸	22	35.5		3~4회	11	17.7	
	대졸	8	12.9		5~6회	7	11.3	
	대학원이상	0	0.0		7회이상	43	69.4	
	거주지	화산면	3		4.8	경작지- 직매장 거리(가 장먼곳 직매장)	~10km이내	15
고산면		4	6.5	11~20km이내	14		22.5	
용진면		28	45.2	21~30km이내	18		29.0	
봉동읍		5	8.1	31~40km이내	6		9.7	
구이면		1	1.6	41~50km이내	7		11.3	
이서면		8	12.9	51~60km이내	2		3.2	
비봉면		3	4.8	농경지- 밭규모	1천평미만	10	16.9	
삼례읍		3	4.8		1천~2천평미만	15	25.4	
소양면		0	0.0		2천~3천평미만	17	28.8	
동상면		1	1.6		3천~4천평미만	8	13.6	
경천면		4	6.5		5천평이상	9	15.3	
농사 경력		운주면	1	1.6	농경지- 논규모	1천평미만	4	40.0
		상관면	1	1.6		1천~2천평미만	2	20.0
		10년미만	10	16.1		2천~3천평미만	2	20.0
	10~20년미만	9	14.5	3천~4천평미만		1	10.0	
	20~30년미만	6	9.7	5천평이상	1	10.0		
	30~40년미만	12	19.4	농경지- 과수원 규모	1천평미만	4	40.0	
	40년이상	25	40.3		1천~2천평미만	2	20.0	
귀농 여부	귀농자	11	17.7		2천~3천평미만	2	20.0	
	원주민	51	82.3	3천~4천평미만	1	10.0		
				5천평이상	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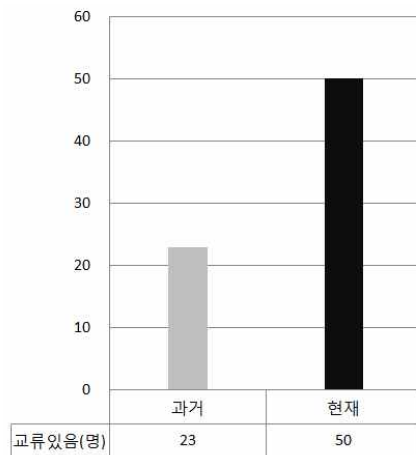
## 2. 사회적 부문의 변화

사회적 부문은 소비자와 교류 여부(교류횟수, 교류이유), 생산자와 교류 여부(교류횟수, 교류이유), 공동체 교류 여부(교류횟수, 교류이유), 농업에 대한 의식 구조 변화 문항의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부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1) 소비자와의 교류 현황

#### (1) 소비자와의 교류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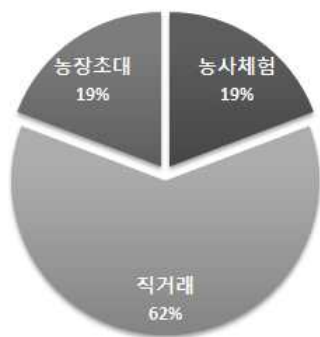
소비자와의 교류 여부의 경우 <그림 IV-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하이전(이후 ‘과거’로 명함) 19.4%(23명)에서 출하이후(이후 ‘현재’로 명함) 80.6%(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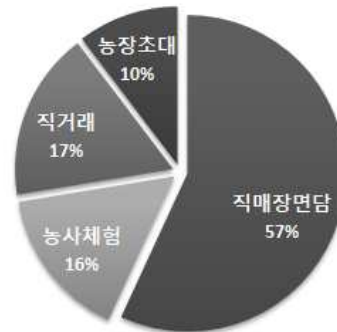
<그림 IV-1> 소비자와의 교류 여부 변화

#### (2) 소비자와의 교류 유형 변화

소비자와의 교류 유형 변화는 <그림 IV-2>에서와 같이 과거 ‘교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23명 중 복수응답으로 직거래가 61.5%(16명)로 가장 높았고, 농사체험, 농장초대 순이었다. 현재 ‘교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50명 중 직매장면담이 56.9%(33명)로 가장 높았고, 직거래, 농사체험, 농장초대 순으로 나타나 직매장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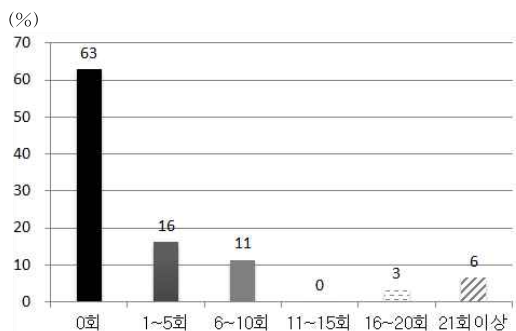
[현재]

<그림 IV-2> 소비자와의 교류 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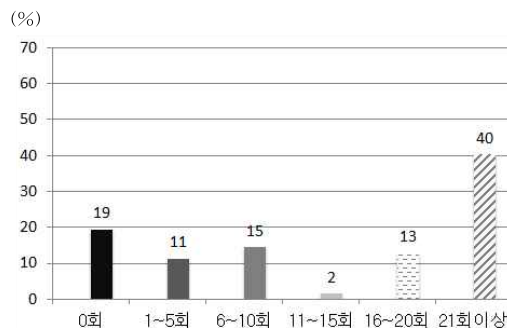
출하 이후 소비자와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직거래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직매장을 통한 면담 등의 교류가 늘어났으며, 농산물 구매 소비자의 문의전화나 직접 농장을 방문하는 등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소비자와의 교류 빈도 변화

소비자와 교류 빈도로는 <그림 IV-3>에서와 같이 과거 5회 이하가 79.1%(49명)로 대부분 교류가 미미 하였으나 현재 16회 이상이 53%(33명)로 과거에 비해서 출하 이후 직매장이라는 소비자와 직접 교류장소가 생김으로 인한 교류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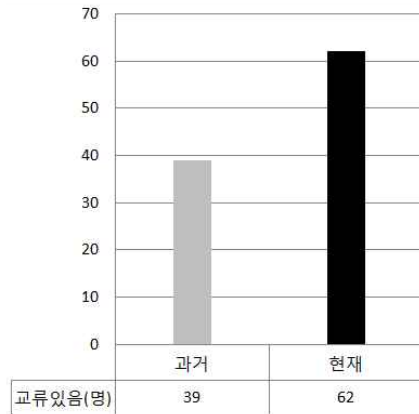
[현재]

<그림 IV-3> 소비자와의 교류 빈도 변화

## 1) 생산자와의 교류 현황

### (1) 생산자와의 교류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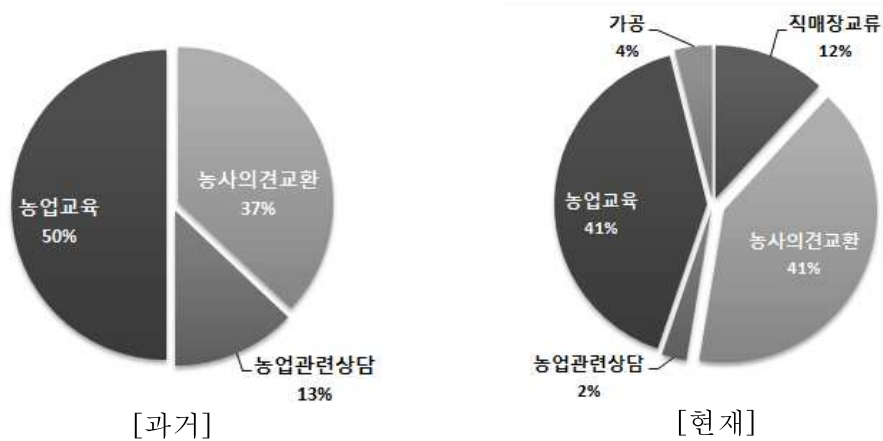
생산자간의 교류 여부의 경우 <그림 IV-4>에서와 같이 과거 62.9%(39명)에서 현재 100%(62명) 전원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생산자간의 교류 여부 변화

### (2) 생산자와의 교류 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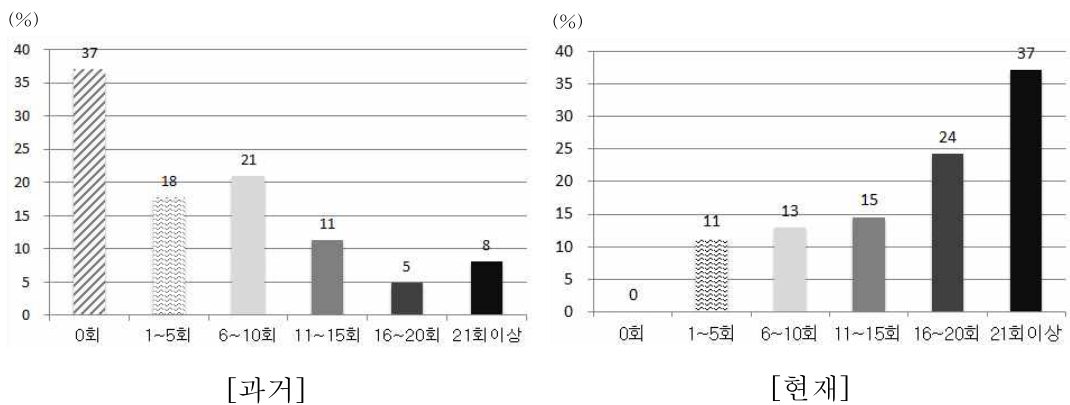
생산자와 교류 유형변화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그림 IV-5>에서와 같이 과거 ‘농업교육참석’ 50.0%(27명)에서 현재 ‘농업교육’, ‘농사의견교환’ 82.0%(62명), ‘직매장교류’, ‘가공’, ‘농업관련상담’ 순으로 여전히 교육과 농사의견교환의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매장 교류, 가공 교류 등의 확대는 직매장,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의 조성이 생산자 간의 교류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생산자간의 교류 유형 변화

### (3) 생산자와의 교류 빈도 변화

생산자와의 교류빈도는 <그림 IV-6>에서와 같이 과거 ‘10회 이하’ 76%(47명)이었으나 현재 모든 생산자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6회 이상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8명)나 되는 등 출하 이후 전반적인 교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참석 및 직매장에서의 교류 등에 의한 생산자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며, 교류를 통하여 농업 관련정보 교류가 있음이 설문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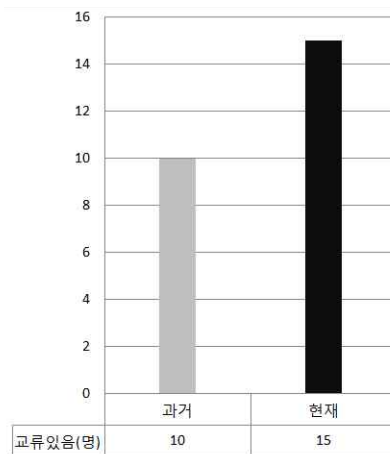


<그림 IV-6> 생산자간의 교류 빈도 변화

## 2) 공동체 교류 현황

### (1) 공동체로의 출하 여부 변화

공동체를 통한 출하 여부의 경우 <그림 IV-7>에서와 같이 과거 16.1%(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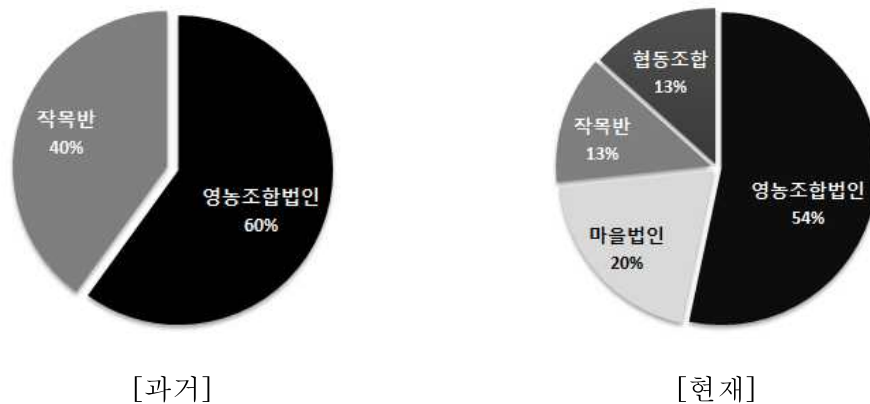


<그림 IV-7> 공동체로의 출하 여부 변화

에서 현재 24.2%(15명)이 공동체 출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마을기업, 두레농장 등 공동체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1차 농산물 생산자의 공동체 교류빈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부분은 개별단위의 출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들의 공동체 교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참여 공동체 조직의 출하 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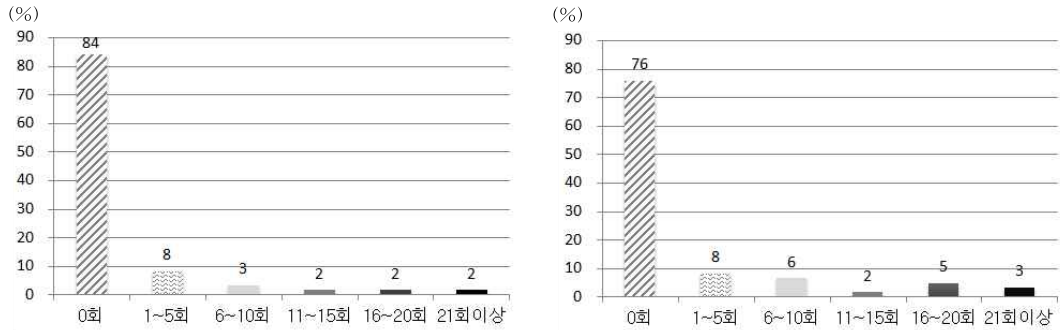
참여 공동체 조직의 출하 유형 변화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그림 IV-8>과 같이 과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었던 것에서 현재 영농조합법인, 마을법인, 작목반, 협동조합 등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인 협동조합과 마을법인(마을기업) 등으로 공동체 참여가 확대 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IV-8> 참여 공동체 조직 출하 유형 변화

(3) 공동체 출하 빈도 변화

공동체 출하빈도의 변화는 <그림 IV-9>에서와 같이 과거 1~5회 8.1%(5명)가 많았고 6~10회, 11~15 순으로 현재도 빈도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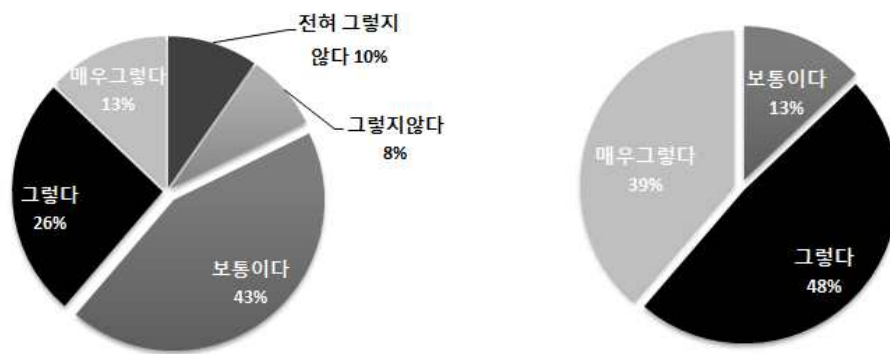
[과거] [현재]

<그림 IV-9> 공동체로의 출하 빈도 변화

### 3) 농업에 대한 의식구조

#### (1) 농업 생산활동 보람, 자긍심 변화

농업 생산활동에 있어 보람과 자긍심에 대한 변화는 <그림 IV-10>과 같이 과거 긍정적인 응답이 39%(2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4명)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조사되었으며 부정적인 응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컬푸드가 농업에 대한 보람이나 자긍심에 대한 인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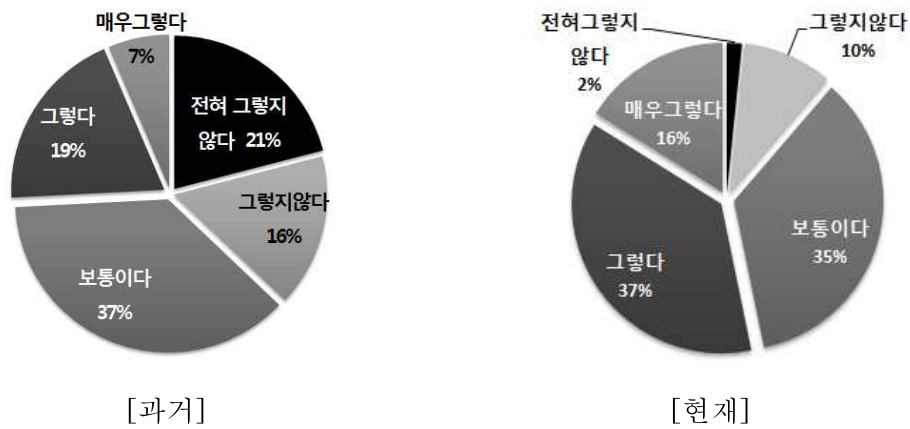
[과거] [현재]

<그림 IV-10> 농업생산활동 보람, 자긍심 변화

(2)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 줄 의향 변화

과거 ‘자녀와 함께 농업생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3.2%(2명)에서 현재 9.7%(6명)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의향에 대한 질문에 <그림 IV-11>에서 보듯이 과거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등 부정적인 응답이 39%(23명)이었으나 로컬푸드 출하 이후 12%(7명)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과거 26%(16명)에서 53%(33명)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11>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 줄 의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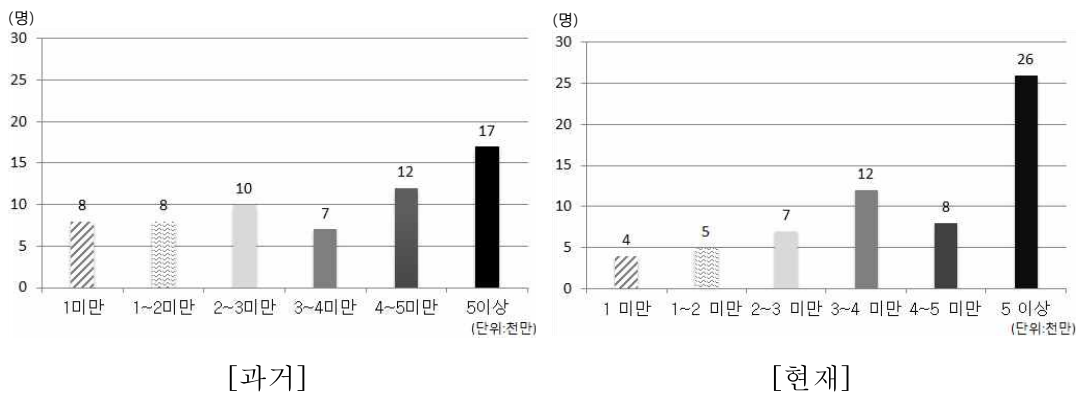
### 3. 경제적 부문의 변화

경제적 부문은 농가수익변화(농업소득 총매출액변화), 로컬푸드를 통한 수익(총매출액 중 로컬푸드를 통한 수익액), 경영성과 변화, 농업생산 지출비 변화, 농산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1) 농가수익구조

##### (1) 로컬푸드 참여 농가 총 매출 변화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총매출(수익금+지출액) 관련 변화로는 <그림 IV-12>에서와 같이 1천만원 미만이 과거 12.9%(8명)에서 현재 6.5%(4명)로 줄어든 반면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는 27.4%(17명)에서 41.9%(26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총매출 변화는 전반적으로 과거 보다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적 부문 농가수익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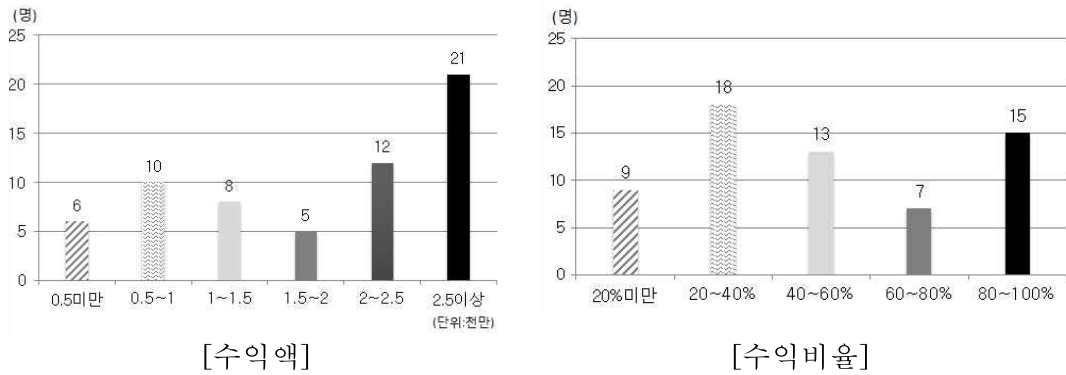


<그림 IV-12> 로컬푸드 참여 농가 총 매출 변화

##### (2) 총 매출액 중 로컬푸드 수익액과 수익비율

전체 매출액 중에서 로컬푸드를 통해 얻은 참여농가의 수익액과 수익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림 IV-13>에서와 같이 2천 5백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생산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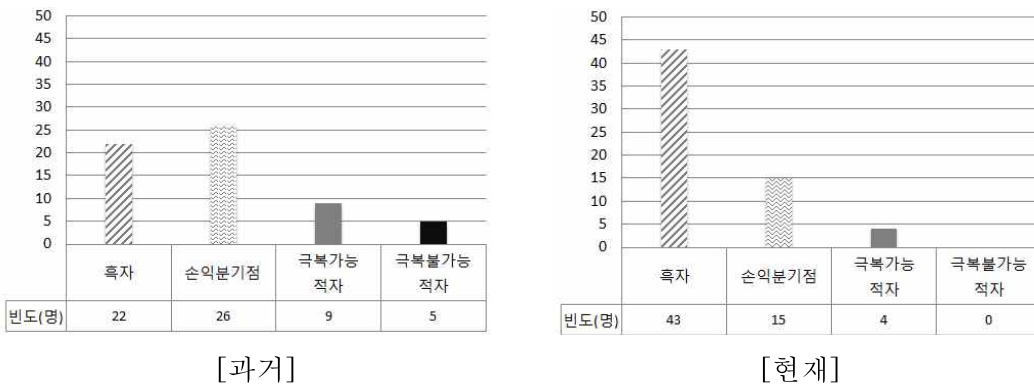
<그림 IV-13> 총 매출액 중 로컬푸드 수익액과 비율

33.9%(21명)이었으며, 5백만원 미만은 9.7%(6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매출액의 80% 이상 수익을 얻는 비율도 24%(1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이 농가수익의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으로 ‘매월 50만원 ~ 1백만원 정도의 판매수익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전 1회성 목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농업경영과 농가 가계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라고 응답하는 등 농업 자금운용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경영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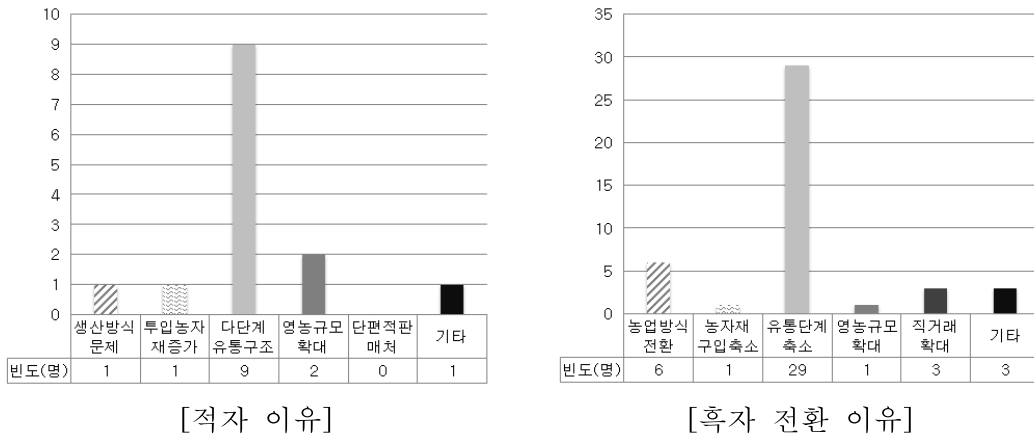
<그림 IV-14>에서와 같이 과거 ‘손익분기점’이 4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극복 불가능적자’도 8.06%(5명)이었으나 현재는 ‘극복불가능적자’가 전혀 없는 점과 ‘흑자’ 69.4%(43명)로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14> 경영 성과 변화

(4) 적자 및 흑자 전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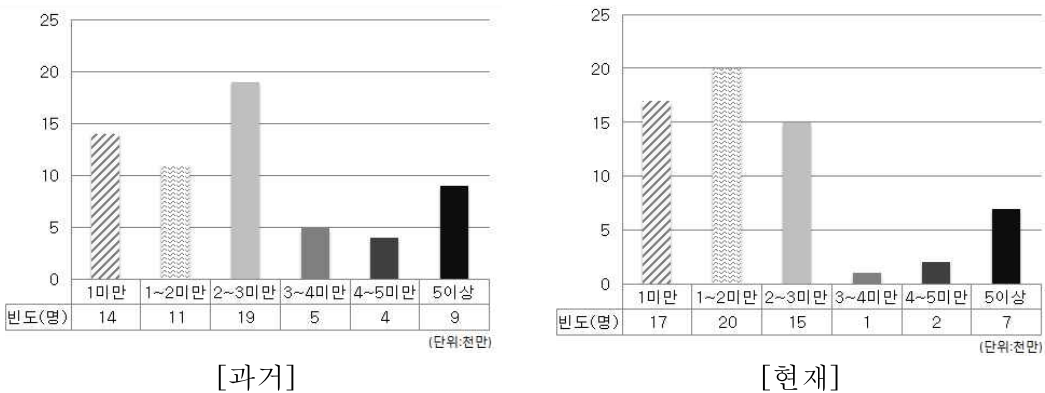
과거 농장의 1년간 경영성과가 적자였던 이유와 흑자전환 이유로 <그림 IV-15>에서와 같이 과거에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적어서’가 64.3%(9명)로 가장 많았고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투입’, ‘생산방식문제’, ‘투입농자재 증가’순이었다. 현재 흑자로 돌아선 이유로 ‘유통단계축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에 의한 수익’ 67.4%(29명)가 가장 많았고, ‘농업방식전환에 따른 영농자재비 절감’, ‘직거래확대’,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상승’ 순으로 유통단계의 축소에 의한 농산물 값의 적정성이 농가수익에 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 경영 성과 변화 이유

(5) 농업생산부문 지출 규모 변화

농업생산부문 지출 규모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결과 <그림 IV-16>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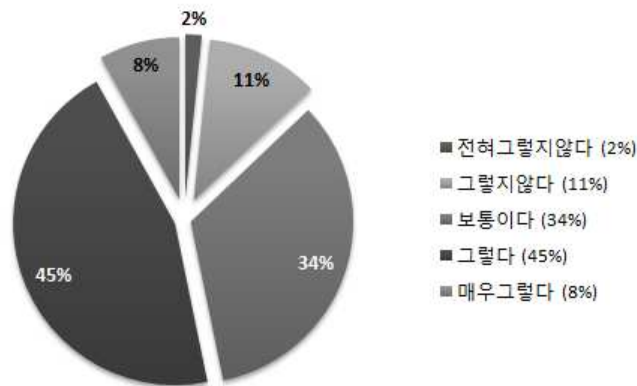


<그림 IV-16> 농업생산부문 지출 규모 변화

와 같이 과거 ‘2~3천만원’이 30.6%(19명)로 가장 많았지만, 현재 ‘1~2천만원’이 32.3%(20명), ‘1천만원 미만’도 27.4%(17명)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로컬푸드 참여로 지출 감소 체감 여부

로컬푸드 출하 이후 지출감소 체감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그림 IV-17>과 같이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7명)와 ‘보통이다’ 34%(21명)에 비하여 로컬푸드가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3명)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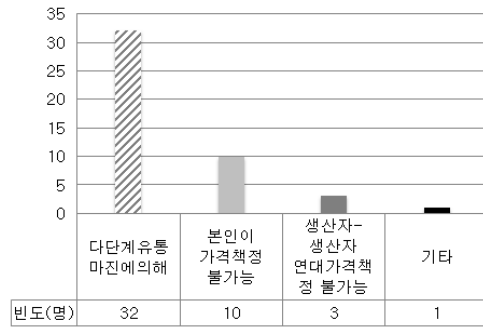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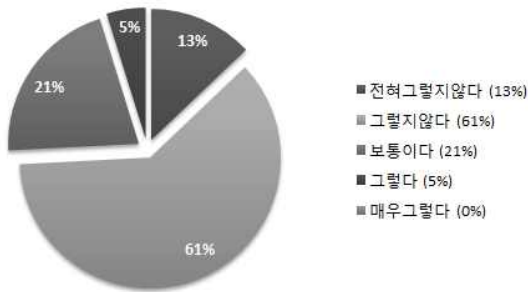
<그림 IV-17> 로컬푸드 참여로 지출 감소 체감 여부

2) 농산물 가격 적정성

(1)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과거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농산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그림 IV-18>에서와 같이 ‘농산물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61%(38명)로 가장 높았고 적정하지 못한 이유로 69.6%(32명)가 ‘다단계 유통마진’을 꼽아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적정한 부분에서 과거 시장방식으로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과거 일반시장의 유통마진이나 가격 책정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반 농산물의 가격 적정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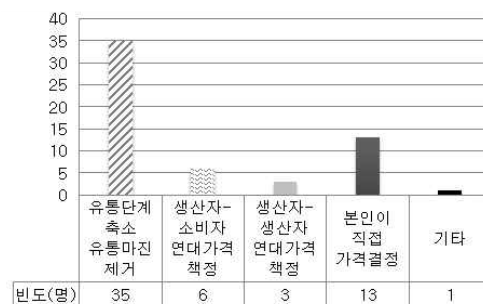
<그림 IV-18>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과거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2)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현재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현재 농산물 가격에 대해 걱정한다라는 질문에 <그림 IV-19>에서와 같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55명)이었으며, 걱정 이유로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마진이 높아서 60.3%(35명), 본인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서 22.4%(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하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85% 이상이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설문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생산자 본인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인해서 갖는 자부심이나 긍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가격 적정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이유]

<그림 IV-19>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현재 농산물 출하 가격 적정성과 그 이유

#### 4. 환경적 부문의 변화

환경적 부문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하여 환경이나 농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조사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영농방법에 대한 비교’, ‘과거와 현재의 토양관리 방법 비교’, ‘과거와 현재의 병충해 관리방법 비교’, ‘현재와 과거의 출하 농산물 품목 수 비교’, ‘현재와 과거의 외부자원 절감노력 비교’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적 부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1) 영농방법 변화

로컬푸드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영농방법에 대해 <그림 IV-20>과 같이 과거 ‘주변의 보편적 관행방식(내방식)’ 54.8%(34명), ‘권장기준에 맞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관행방법’ 24%(1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무농약 친환경기준정도’ 45.2%(28명)와 ‘저농약GAP 기준정도’ 32.3%(20명), ‘유기 친환경기준정도’ 9.7%(6명)로 전반적으로 저농약 수준 이상의 영농방법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원순환형 관계지향 농업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자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로컬푸드가 농업방식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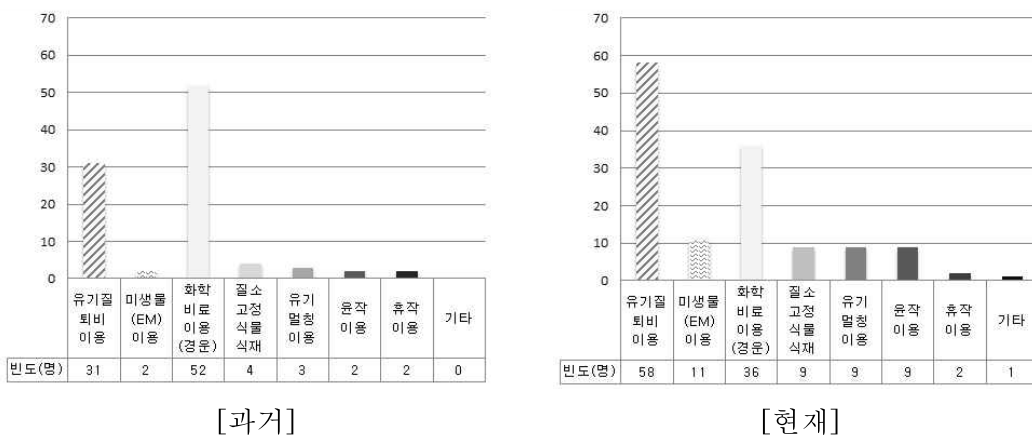
<그림 IV-20> 영농방법 변화

하지만, 대체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정한 농산물 안전기준에 근거한 농법으로 전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토양 관리방법 변화

토양관리 방법변화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그림 IV-21>에서와 같이 과거 ‘토양 경운’과 ‘화학비료이용’의 응답비율이 54.2%(52명)로 가장 많았고, ‘유기질퇴비 이용’ 순이었으나 현재 ‘유기질 퇴비 이용’ 응답비율이 43%(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화학비료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고 유기질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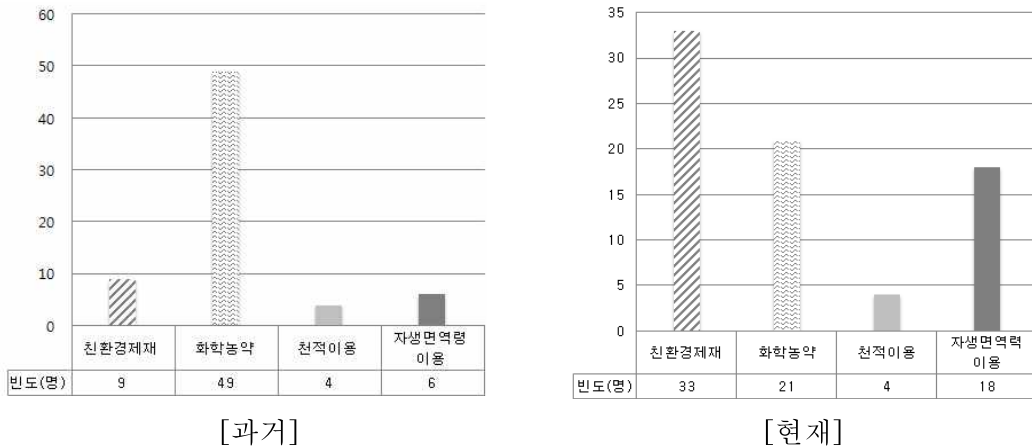
토양 경운 부분은 이전이나 현재나 큰 변화가 없고 화학비료 절감은 대략 30% 정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문 과정 중에 조사되는 등 전반적인 토양관리 방법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 토양관리방법 변화

## 3) 병충해 관리방법 변화

병충해관리 방법변화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그림 IV-22>에서와 같이 과거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가 72.1%(4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는 27%(21명)로 감소하였고, ‘친환경제제에 의한 방제’가 43.4%(33명)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학농약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림 IV-22> 병충해관리방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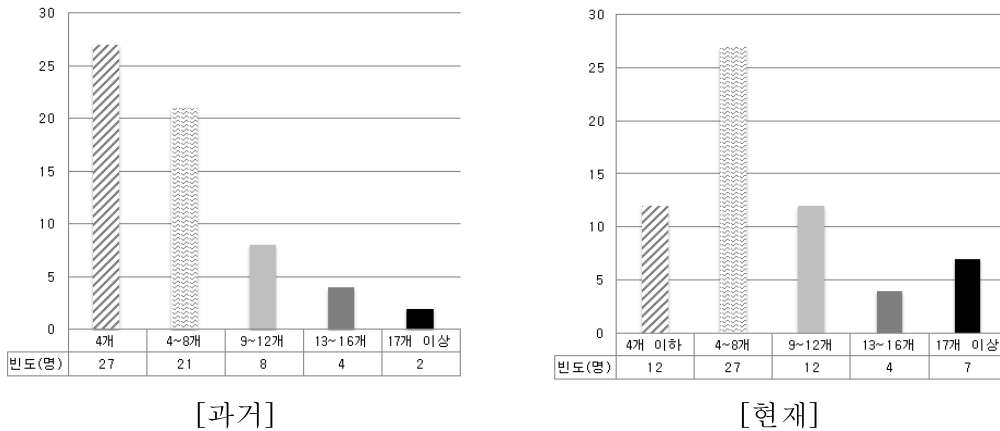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정 중에서 농약의 사용빈도와 사용량에 있어서도 50% 이상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사항으로 ‘자생면역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경지 내에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다보니 특별히 방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피해 없이 생산할 수 있고, 병충해가 와도 일부만 걷어내면 다른 작목은 괜찮다’라는 응답이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통해서도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출하농산물 작목 개수 변화

출하농산물 작목 개수의 변화는 <그림IV-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 ‘4개 이하’가 43.5%(27명)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4~8개 이하’도 33.9%(21명)로 평균 4개 정도의 작목을 1년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4~8개 이하’가 43.5%(27명)로 평균 8개 정도의 작목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정에서 직매장 내에 출하되지 않는 농산물을 찾아서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고, 실제 직매장 시행초기에 보이지 않던 여러 농산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지역특산 작물 등도 보이는 점은 작물의 종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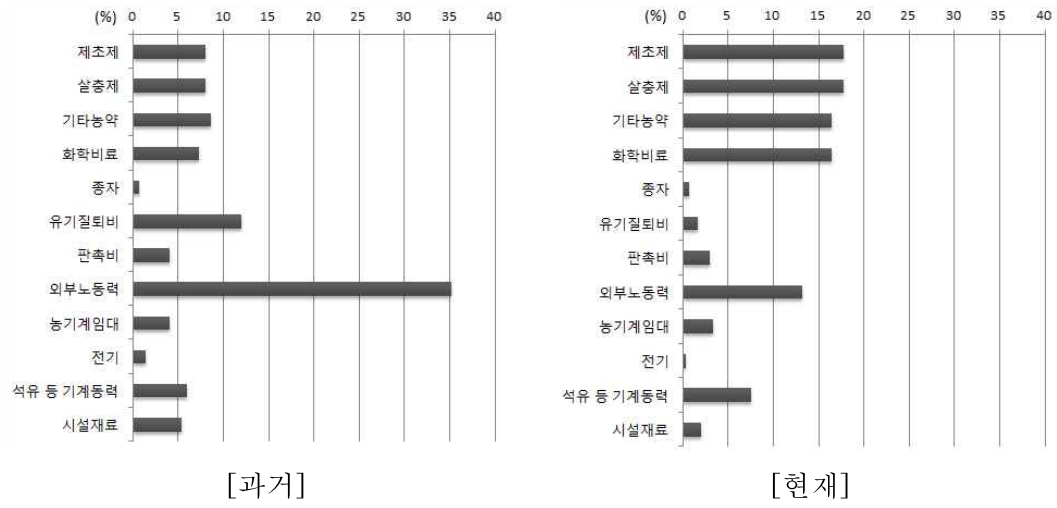
<그림 IV-23> 출하 농산물 작목 개수변화

### 5) 외부 투입자원 절감 노력 변화

생산과정 중 농장 외부의 투입자원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의 외부자재 절감 노력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그림 IV-24>에서와 같이 과거 ‘외부노동력’과 ‘유기질 퇴비’ 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제조제’, ‘살충제’, ‘기타농약’, ‘화학비료’의 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로컬푸드 생산을 통한 외부 투입자원들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 중에 ‘친환경경제구입’과 관련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대체하기 위하여 ‘유기질 퇴비’나 ‘친환경경제’의 구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외부자재 투입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자재의 절감노력과 함께 농장 내부나 지역단위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IV-24> 외부 투입자원 절감 노력 변화

## 5.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

### 1) 부문 간 상관관계 분석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 영역의 부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의 15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부문 변수로 ‘소비자교류 변화’, ‘생산자교류 변화’, ‘공동체교류 변화’, ‘자긍심고취도 변화’, ‘농업의 자녀대물림 의식변화’ 등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경제적 부문 변수로 ‘농업총매출 변화’, ‘농업총지출 변화’, ‘로컬푸드 영향에 따른 지출감소 체감도’, ‘경영성과 변화’,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 등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환경적 부문 변수로 ‘토질개선방법 변화’, ‘병충해방지방법 변화’, ‘외부자재 절감 노력 변화’, ‘생산 품목 수 변화’, ‘영농방식 변화’ 등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 2) 분석결과

각 부문의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 IV-2>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부문간 상관관계 행렬표

구분	사 회 적 부 문					경 제 적 부 문					환 경 적 부 문				
	소비 자 교류 변화	생산 자 교류 변화	공동 체 교류 변화	자 금 고 취 도 변화	자 녀 대 림 의 식 변 화	로컬 푸드 영 향 지 출 감 소 체 감 도	농 산 물 가 격 만 족 도 변 화	농 업 총 매 출 변 화	경 영 성 과 변 화	농 업 지 출 변 화	토 질 개 선 방 법 변 화	병 충 해 방 지 방 법 변 화	외 부 자 재 절 감 노 력 변 화	농 산 물 생 산 품 목 수 변 화	영 농 방 식 변 화
사 회 적 부 문	소비자 교류변화	1													
	생산자 교류변화	.484**	1												
	공동체 교류변화	.026	.051	1											
	자금심 고취도 변화	-.138	-.141	.055	1										
	자녀 대림의 식변화	-.087	-.132	.105	.360**	1									
경 제 적 부 문	로컬푸드 영향 지출감소 체감도	.204	.223	-.021	.229	.025	1								
	농산물 가격만족 도변화	.252*	.040	.110	.305*	.241	.451**	1							
	농업 총매출 변화	.123	-.076	-.101	.219	.064	.411**	.271*	1						
	경영성과 변화	.005	.108	-.089	.381**	-.040	.420**	.361**	.543**	1					
	농업 총지출 변화	-.121	.088	.356**	.090	.064	-.005	.172	-.253*	-.107	1				
환 경 적 부 문	토질개선 방법변화	.259*	.141	.085	.105	.080	.358**	.261*	.157	.248	.200	1			
	병충해 방지방법 변화	.278*	.051	.075	.143	.109	.256*	.345**	.011	.176	.294*	.449**	1		
	외부자재 절감노력 변화	.171	.109	-.022	.042	.199	.363**	.495**	.101	.203	.073	.348**	.339**	1	
	농산물 생산품목 수변화	-.154	-.073	.149	.304*	.120	.190	.055	.095	.175	.222	.181	.174	.195	1
	영농방식 변화	.189	.134	.026	-.053	.103	.486**	.470**	.197	.173	.124	.241	.336**	.791**	.126

\*\* : p ≤ 0.01에서 유의함      \* : p ≤ 0.05에서 유의함

(1) 사회적 부문과 경제적 부문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부문의 ‘소비자교류 변화’, ‘생산자교류 변화’, ‘공동체교류 변화’, ‘자긍심 고취도 변화’, ‘농업의 자녀대물림 의식변화’ 등 5개 변수와 경제적 부문의 ‘농업 총매출 변화’, ‘농업총지출 변화’, ‘로컬푸드 영향에 따른 지출감소 체감도’, ‘경영성과 변화’,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 등 5개 변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표 IV-3>과 같이 ‘소비자교류의 변화 - 농산물가격 만족도의 변화’, ‘자긍심 고취도 변화 - 농산물가격 만족도 변화’, ‘자긍심 고취도 변화 - 경영성과 변화’, ‘공동체 교류의 변화 - 농업 지출비 변화’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류의 변화 - 농산물가격 만족도의 변화’에서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은 소비자를 통한 직접 대면의 관계가 농산물 판매와 연결됨으로 만족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의 변화와 자긍심고취도 변화에 따른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사회적 부문 - 경제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구분		사 회 적 부 문		
		소비자 교류변화	공동체 교류변화	자긍심고취도변화
경 제 적 부 문	농산물 가격 만족도변화	.252*		.305*
	경영 성과 변화			.381**
	농업 총 지출 변화		.356**	

\*\* :  $p \leq 0.01$ 에서 유의함      \* :  $p \leq 0.05$ 에서 유의함

(2) 경제적 부문과 환경적 부문의 상관관계 분석

경제적 부문의 ‘농업총매출 변화’, ‘농업총지출 변화’, ‘로컬푸드 영향에 따른 지출감소 체감도’, ‘경영성과 변화’,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 등 5개 변수와 환경적 부문의 ‘토질개선방법 변화’, ‘병충해방지방법 변화’, ‘외부자재 절감노력 변화’, ‘생산 품목 수 변화’, ‘영농방식 변화’ 등 5개 변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표 IV-4>와 같이 ‘로컬푸드의 영향으로 농업지출비 변화 - 토질개선방법 변화’, ‘로컬푸드의 영향으로 농업지출비 변화 - 병충해 방지 변화’, ‘로컬푸드의 영향으로 농업지출비 변화 - 외부자재 절감 노력 변화’, ‘로컬푸드의 영향으로 농업지출비 변화 - 영농방식 변화’, ‘농산물 가격의 만족도 변화 - 토질개선 방법 변화’, ‘농

산물 가격의 만족도 변화 - 병충해 방지 방법 변화’, ‘농산물 가격의 만족도 변화 - 외부자재 절감노력도 변화’, ‘농산물 가격의 만족도 변화 - 영농방식 변화’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영향지출 감소 체감도와 토질개선 방법 변화, 병충해 방지 방법 변화, 외부자재절감노력 변화, 영농방식 변화 간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난 점은 전반적인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 절감으로 인한 지출 감소의 체감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충해방지 방법의 변화에 따라 농업 총 지출액이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난 것은 농약사용을 배제하거나 절감시키는 노력 등이 농업의 지출액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IV-4> 경제적 부문 - 환경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구분		경 제 적 부 문		
		로컬푸드 영향 지출 감소 체감도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	농업 총 지출 변화
환경적 부문	토질개선 방법 변화	.358**	.261*	
	병충해 방지 방법 변화	.256*	.345**	.294*
	외부자재절감노력 변화	.363**	.495**	
	영농 방식 변화	.486**	.470**	

\*\* :  $p \leq 0.01$ 에서 유의함      \* :  $p \leq 0.05$ 에서 유의함

### (3) 환경적 부문과 사회적 부문의 상관관계 분석

환경적 부문의 ‘토질개선방법 변화’, ‘병충해방지방법 변화’, ‘외부자재 절감노력 변화’, ‘생산 품목 수 변화’, ‘영농방식 변화’ 등 5개 변수와 사회적 부문의 ‘소비자 교류 변화’, ‘생산자교류 변화’, ‘공동체교류 변화’, ‘자긍심고취도 변화’, ‘농업의 자녀대물림 의식변화’ 등 5개 변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표IV-5>와 같이 ‘토질개선 방법의 변화 - 소비자 교류 변화’, ‘병충해 방지 방법의 변화 - 소비자 교류 변화’, ‘농산물 생산 품목수의 변화 - 자긍심 고취도 변화’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질개선 방법 변화, 병충해방지 방법 변화와 소비자 교류 변화 간의 상관관계

가 있음으로 나타난 것은 소비자와의 교류가 화학자재의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농산물생산품목수 변화와 자긍심 고취도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품목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환경적 부문 - 사회적 부문 상관관계 행렬표

구분		환경적 부문		
		토질개선 방법 변화	병충해 방지방법변화	농산물생산품목수변화
사회적 부문	소비자 교류 변화	.259*	.278*	
	자긍심 고취도 변화			.304*

\*:  $p \leq 0.05$ 에서 유의함

## 6. 종합 분석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의 농업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부문에서의 변화된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직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교류가 늘어나고 만나는 횟수도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생산자와의 교류도 교육 참석 증가, 공동 가공작업, 직매장에서의 교류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교류의 경우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교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농업에 대한 의식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 생산 활동에 대한 보람이나 자긍심 부분에서 과거와는 확연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자녀와 함께 농사를 짓게 된 경우도 1년 전과 비교해서 3배정도로 늘어났으며, 농업을 물려줄 의향도 과거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강 등, 2010; 김, 2008a; 김, 2011; 김, 2012; 김, 2007; 윤, 2008a; 우, 2011; 나, 2011a; 이, 2013; 안, 2009; 임, 2013; 허

등 2011; 현, 2009) 등에서 로컬푸드에 의한 변화나 장점, 특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가 증가와 면대면에 의한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형성, 소비자의 산지 방문, 생산자와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감 형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최상의 농산물 제공노력도 증가, 주체 간 협력 체계 형성, 소규모 가족농을 지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농업이해 등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체 간 협력체계 부분에서 생산자조직 뿐만 아니라 소비자조직, 기타 지원조직 등 로컬푸드의 각 주체들이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의 어떤 변화나 위협으로부터 지역농업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부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가수익 부분의 총매출액이 증가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수익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경영부분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농산물 값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어서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고 지출부분에서도 매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출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로컬푸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김 등, 2012; 윤, 2008a; 나, 2011a; 안 2009; 임, 2013; 허, 2011) 등에서 로컬푸드에 의한 경제적 특성으로 단순 유통 및 짧은 공급체계로 인한 경제적 효과, 생산, 유통, 소비체계의 재편으로 인한 효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성 경제를 통한 생산과 소비의 동일, 직거래 및 로컬푸드 시장개척을 통한 소득증대, 3,000농가의 월소득 1백만원 경제수익, 로컬푸드의 지역 내 판매를 통한 농민의 유통문제 해결, 소비에 맞는 상품생산과 안정적 공급에 의한 농가소득, 농산물 가격의 대부분을 생산자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식량에 지불하는 비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과 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생산자들도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산자 대책모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적 부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농방법의 경우 예전 관행방식의 농업에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자원순환방식 등의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예로 화학농약의 사용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가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학비료 또한, 전반적으로 30%이상 절감하려 노력하였고, 유기질 퇴비 등의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생산하는 농작물 품목수도 증가하여 작물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외부 투입자원의 절감에서도 제초제, 살충제, 기타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강과 임, 2010; 김, 2008a; 김 등 2012; 김, 2012; 윤, 2008; 장, 2013; 나, 2011a; 이, 2013; 임, 2013; 허, 2011; 현, 2009) 등에서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농산물 생산, 석유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전환, 퇴비, 효소, 경종축산 결합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에너지 의존적 농업의 붕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생산,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순환적 농업 가능, 농약, 화학비료 사용이 관행농업의 1/2 감소, 사람과 살아있는 생물 모두를 소생 시킴, 지역 내 농업생산의 물질순환, 작물의 다양화로 인한 농화학자재 사용 배제, 환경오염 절감효과, 이동거리 단축으로 석유에너지 사용 절감, 토종작물 보호, 농업방식의 전환으로 화학농자재 투입 감소, 유기폐기물관리, 물 관리, 생산 잔류물 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등의 제시되는 내용들처럼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 부문의 아쉬운 점은 농업방식의 전환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직매장 출하 기준을 의식해서 저농약이나 무농약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외부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자재의 절감노력 부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농장 내부에서 나오는 유기폐기물의 재활용 부분이나 농장 내 순환 농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시도하지 않고 있음을 조사 과정 중에서 알 수 있었고,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 부분만큼을 또 다른 친환경 제제나 외부에서 구입하는 유기질 퇴비로 대체하고 있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저투입 농업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농업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부문 간 상호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부문의 소비자 교류의 변화가 경제적 부문의 농산물 가격 만족도, 환경적 부문의 토질개선방법변화, 병충해 방지방법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문의 경영성과 변화는 사회적 부문의 자긍심 고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부문의 토질개선방법 변화, 병충해 방지 방법변화, 외부자재 절감노력 변화 영농방식의 변화는 경제적 부문의 로컬푸드 영향 지출 감소의 체감변화 및 농산물 가격 만족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병충해 방지 방법 변화와 농업 총지출의 변화도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김, 2007; 윤, 2008; 우, 2011; 나, 2011a; 이, 2013; 임, 2013; 허, 2011; 현, 2009)에서 생산과 소비가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 농민과 소비자 상호간 교류협력 증대, 관계성 경제를 통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지역소비로 인한 환경부하 절감, 물리적 거리 축소로 환경오염을 줄임, 거리축소로 순환적 농업 가능, 소비자와 대면접촉에 의한 농업방식의 전환 및 생산자 소비자의 상호관계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종 다양성 확보와 농업 방식의 전환으로 화학 농자재 투입이 감소, 소득의 지역순환으로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 등의 제시된 내용들과 같이 부문들 간 상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있어서 로컬푸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직매장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자료 조사, 선행연구 조사, 사례조사 분석을 토대로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농업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적 부문(농업활동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변화, 농업활동의 가치 변화), 경제적 부문(농가소득 변화, 농산물 가치변화), 환경적 부문(농법의 변화)과 관련한 측정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완주군의 ‘1년 이상 로컬푸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조사를 통하여 완주군의 로컬푸드 관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11월 20일 ~ 23일 4일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이전과 이후의 농업활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인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부문’에서 주체들 간 관계 형성이 확대되었고, 농업에 대한 가치, 자긍심 등의 의식이나 태도 등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와의 교류, 생산자와의 교류, 공동체와의 교류, 농업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등에서 출하 이전과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와의 만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적극적인 관계형성인 농장초대나 체험 등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자나 공동체와의 관계형성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농사짓는 마을 단위에서의 교류가 대부분이었지만,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전체의 다른 농가나 공동체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고, 교류의 횟수도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복원 시킨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로컬푸드’는 생산자들의 ‘경제적 부문’에서 지출 감소와 매출 증가 등 농가소득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농산물 가격의 만족도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매출의 변화, 로컬푸드 수익액, 경영성과 변화, 농업생산 지출규모변화, 농산물 가격의 적정성 등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의 경제적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자들의 총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로컬푸드를 통한 수익금액이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도 56% 이상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의 변화에서도 흑자로 돌아선 농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고, 흑자로 돌아선 이유로 67%의 응답자가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농산물 값의 대부분이 농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을 꼽았다. 로컬푸드 농산물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89% 이상 응답자가 적정하다고 응답하는 등 농산물가격의 대부분이 지역농민에게로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민에게 들어간 자본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게 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는 ‘환경적 부문’에서 화학자재의 사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시키고 다품종 농작물 생산을 통한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방법의 변화, 토양관리방법의 변화, 병충해 관리방법의 변화, 생산하는 농작물 개수의 변화, 외부 투입자원 절감 노력의 변화 등 전반적으로 출하이전에 비하여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관행방식의 농사방식에서 58%이상이 무농약 친환경방식 이상의 농업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기농업이나 자원순환방식 등 높은 단계의 환경농업 방식으로도 전환하는 농가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산자가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농업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관리나 병충해방지 부분도 이전에 화학농자재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유기질퇴비나 친환경재제를 이용하는 것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농산물 개수 또한 4개 이상 작목을 출하하는 응답자는 과거 56%에서 현재 81%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투입자원에 절감 노력에서도 과거 외부노동력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초제, 살충제, 기타농약, 화학비료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절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로컬푸드 지속가능성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부문 모두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부문 - 경제적 부문’에서는 ‘소비자교류의 변화’와 ‘농산물 가격 만족도의 변화’( $r=0.252, p \leq 0.05$ ), ‘자궁심 고취도 변화’와 ‘경영성과 변화’( $r=0.381, p \leq 0.01$ ) 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부문 - 환경적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영향에 의한 지출 감소 체감도’와 ‘영농 방식의 변화’( $r=0.486, p \leq 0.01$ ), ‘농산물 가격 만족도 변화’와 ‘외부자재 절감노력 변화’( $r=0.470, p \leq 0.01$ ), ‘농업총지출 변화’와 ‘병충해 방지방법 변화’( $r=0.294, p \leq 0.05$ ) 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적 부문 - 사회적 부문’에서는 ‘토질개선 방법의 변화’, ‘소비자교류 변화’( $r=0.259, p \leq 0.05$ ), ‘병충해방지방법 변화’와 ‘소비자 교류변화’( $r=0.278, p \leq 0.05$ ) 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컬푸드 생산자의 사회적 부문, 경제적 부문, 환경적 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에 로컬푸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느 한 요인의 영향 때문이기 보다는 각 부문별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인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사점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출하 이후 농업활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푸드’는 ‘경제적 부문’에서 로컬푸드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규모 가족농과 자가소비 형태의 열악한 지역농업구조의 현실을 직매장, 꾸러미상자 등의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안정된 판로구축과 소득구조 개선으로 지역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 값의 대부분이 농민 몫으로 돌아감으로 자본의 지역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둘째, ‘로컬푸드’는 ‘환경적 부문’에서 친환경적 농업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작물종 다양성 확보 등의 자연과 농업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로 응답자들이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농약, 화학비료 등 외부 투입자재의 절감 노력 등은 환경적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생산자 스스로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의 전환 노력보다는 출하기준에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투입 농자재에 대해서도 화학농자재의 대체품으로 고가의 친환경제재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 내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순환방식 등을 찾아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로컬푸드’는 ‘사회적 부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촉진시켜 신뢰 관계를 만들고, 농업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의 전환에 대한 의견교환과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부문과 환경적 부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와의 대면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대상을 알게

됨으로 생기는 신뢰관계에 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게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생산자의 농산물이기에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지역의 '농업공동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구하거나 제시한 자료들은 경제적 부문이나 환경적 부문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농정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소농(強小農)'육성정책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가경영 및 경제적 여건의 향상만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목표인 것으로 설정하여 생산의 현대화, 규모화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 형성과 같은 부분의 활동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 부분, 제도적인 부분도 지속가능한 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앞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역 내부의 주체들 간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고 신뢰관계를 통한 소비자의 농업지원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로컬푸드가 지니고 있는 속성 중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면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농업생산방식의 변화와 농가의 경제적 안정화 등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강승진, 임경수, 2010,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방안, 제주발전연구원, pp. 27-30.
- 권영근, 2006, 지역농업론의 실천방향과 협동조합의 역할
- 김귀곤, 김귀순, 김승윤, 2003,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행, 아카데미서적, 248p.
- 김병혁, 2007, 친환경농업활성화와 로컬푸드 운동의 연계, 농업기술회보 44(4), pp. 18-25.
- 김성철, 2002, 생태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28-134.
- 김종덕, 2008a, 석유에너지 위기와 대안식량체계, ECO 12(2), pp. 33-57.
- 김주영, 2012,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0p.
- 김창길, 김정호, 200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45.
- 김창길, 정학균, 김윤희, 김태훈, 문동현, 2011,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 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p.
- 김철규, 2008b,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정치, 한국사회, 한국사회연구소, pp. 123-146.
- 김철규, 2011,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pp. 115-124.
- 김철규, 윤병선, 김홍주, 2012,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 pp. 12-38.
- 김홍주, 2006,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 : 두레체험 생산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16(1), pp. 95-140.
- 나영삼, 2011a,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업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9p.

- 나영삼, 2011b, 지역농정혁신과 로컬푸드, 지속가능한농업으로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제토론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최 발제자료, p. 44.
- 나영삼, 2013,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간 협동경제모델 모색 : 국내 직관활성화를 위한 정책혁신 및 조직화과제, 2013 대안농정 대토론회 제3분과 발제문, pp. 219-259.
- 녹색성장위원회, 201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추진계획,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2010.2.3.), pp. 2-101
- 농림수산식품부, 2011, 한·미 FTA 대책 방향은 이렇습니다, 농업정책과(2011. 12. 27), pp. 1-2.
- 농촌진흥청, 2010, 지역농업의 길이 보인다 : 일본·미국·유럽의 로컬푸드 사례, pp. 70-159.
- 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 Our Common Future, The Brundtland Report, 8, p. 43
- 송원규, 2012, 세계농식품체계 하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농업운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6-40.
- 안대성, 2009,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5p.
- 우영균, 2007,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운동, 농업기술회보 44(511), pp. 5-9.
- 유정규, 1998, 환경문제의 심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유기농업학회지 6(2), pp. 41-55.
- 윤병선, 2008a, 세계농식품체계하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의의,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 11-15.
- 윤병선, 2008b,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방안, 산업경제연구 21(2), pp. 501-522.
- 윤병선, 2013, 로컬푸드운동 로컬의 함정을 경계하라, 프레시안(2013.12.16.) 윤병선 칼럼자료, 2p.
- 윤병선, 허남혁, 2011, 지역순환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운동, 열린충남, 제55호, pp. 24-42.
- 이민수, 2013, 전라북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vol.



- 99, pp. 3-18.
- 이숙재, 2006,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30p.
- 임경수, 2013,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들녘, pp. 15-112.
- 완주군, 2012, 2012년 완주군 통계연보.
- 완주군, 2013,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3.03.14. 조례 제2192호).
- 장현욱, 2013, 소비자 특성요인에 따른 로컬푸드 구매행동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p.
- 정은미, 201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5p.
- 충남발전연구원 역, (Tamzin Pinkerton and Rob Hopkins 공저), 2009,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뿌리기, 따비, 420p.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농촌진흥청, 2010,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2010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자료집, pp. 35-53.
- 허남혁, 2006, 제고장 먹거리(Local food) 담론 : 쟁점과 가능성,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7p.
- 허남혁, 이관률, 유학열, 강마야, 조은정, 송주연, 장경호, 김오열, 박준식, 2011,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pp. 8-47.
- 현혜경, 2010,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인식과 실천, 탐라문화 제36호, pp. 262-263.
- 홍경완, 김지영, 김양숙, 2009, 로컬푸드의 개념적 이해 연구, 대한경영학회 22(3), pp. 1179-1194.
- 환경부, 200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 10.

○ 국외문헌

Corum, J. M, R. L., Ruggles, M. B., Ren, W., 2001, Durability-based design criteria for a chopped-glass-fibre automotive structural composite.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no. 61.

FAAN, 2010, Local Food System in Europe. Case studies from five countries and what they imply for policy and practice, pp. 15-26.

Hinrichs, C., 2003, "The practice and politics of food system localiz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9, pp. 33-45

Kloppenburg, J. Jr., Hendrickson, J. & Stevenson, G. W., 1996, Coming in to the foodshed, In W. Vitek and W. Jackson (ed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Kneen, brewster, 1993, From Land to Mouth, Toronto: NC Press LTD.

Trobe, H. L., 2002, Local food, future directions, November 2002, Friends of the Earth.

○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clientpark> (일본 아야정 혼모노 센터 방문사진)

<http://blog.naver.com/stupa84/100021883745> (stupa84의 네이버블로그, 지역과 농업, 권영근, 2006, 지역농업론의 실천방향과 협동조합의 역할)

<http://www.sustainabletable.org> (Sustainable vs. Industrial: a comparison)

<http://www.elotisza.hu> (헝가리 elo tizza 홈페이지)

<http://www.korea.kr> (전국여성 농민회 제철꾸러미사업 관련기사)

<http://www.rda.go.kr/strong/> (농촌진흥청 작지만 강한 소농(強小農))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이전과 이후 농업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직 본 연구목적만으로 이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농학과 교수 송 창 길

조사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배 봉 영

연락처 : 064-754-3310, 010-5796-8728, sillas@naver.com

로컬푸드 출하이전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이전의 시점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면담, 농사체험, 직거래, 농장초대 등의 교류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교류가 없었다.  
(2) 교류 경험이 있다.(연평균 교류 횟수 : \_\_\_\_\_ 회 / 이유표시: 면담, 농사체험, 직거래, 농장초대 등)
2. 로컬푸드 출하이전 지역 내 다른 생산자와 농사관련 의견교환, 농업상담, 농업교육 등의 교류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교류가 없었다.  
(2) 교류 경험이 있다.(연평균 교류 횟수 : \_\_\_\_\_ 회 / 이유표시: 농사의견교환, 농업관련상담, 농업교육등)
3.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농산물을 공동체이름으로(마을법인, 영농법인, 작목반)출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출하한 경험이 있다 (교류 횟수: \_\_\_\_\_ 회 / 이유표시:마을법인, 영농법인, 작목반)

4. 로컬푸드 출하이전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농업생산을 함께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경험이 있다(횟수 : \_\_\_\_\_ 회)
5. 로컬푸드 출하이전 농산물 생산활동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자녀와 함께 영농활동을 했거나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a. 자녀와 함께 했었다 (1) 아니오 (2) 예  
 b. 물려줄 생각이었다 (1) 전혀 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1년간 농업소득액은 얼마였습니까?  
 1년간 전체매출액(소득액+지출액 포함) \_\_\_\_\_ 원
8.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의 경영(경제적)성과는 어떠했습니까?  
 (1) 흑자였다.  
 (2)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였다.(손익분기점)  
 (3) 적자였지만, 단기적으로도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  
 (4) 적자였고, 장기적으로도 적자를 극복하기 힘들었었다.
9. [위 8번 문항의 (3), (4)에 응답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로컬푸드 출하이전 경영성과가 적자였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나의 농산물 생산방식 문제  
 (2)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 농자재 사용량 증가  
 (3)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농가수취가격 하락  
 (4) 영농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비 증가  
 (5) 농산물의 판매처가 단편적이어서  
 (6) 기타(\_\_\_\_\_)
10.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1년간 농업생산에 들어간 지출액은 얼마였습니까?  
 1년간 총지출액 \_\_\_\_\_ 원

11. 로컬푸드 출하이전 농산물 생산 시 지출이 많았던 순서대로 괄호 안에 순번표시(1~4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영농자재비 - 농약, 화학비료, 종자, 퇴비 ( )
- (2) 위탁영농비 - 외부노동력(인건비), 농기계 임대비 ( )
- (3) 영농광열비 - 전기, 석유 등 기계동력, 시설재료 ( )
- (4) 관측비 - 유통비, 택배비, 포장재 구입, 물류비, 홍보 ( )

12.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농산물의 가격은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 [위 12번 문항의 (1), (2)에 응답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마진이 농산물가격을 줄어들게 함
- (2)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 (3) 생산자들과 적정한 가격을 논의를 할 수 없어서
- (4) 기타(\_\_\_\_\_)

14. 로컬푸드 출하이전 영농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1) 내 방식대로(주변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방식과 유사)
- (2) 권장 기준에 맞는 농약, 비료 사용방법
-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기준 정도 방법 (저농약 친환경방식 포함)
- (4) 무농약 친환경 인증 기준 정도 방법
- (5) 유기 친환경 인증 기준 정도 방법
- (6) 농장 내 자원순환 및 관계지향 농사방법

15. 로컬푸드 출하이전 농경지 토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유기질 퇴비를 이용했었다. (복수선택 가능함)
- (2) 미생물(EM)을 활용했었다.
- (3) 토양경운과 비료를 사용했었다.
- (4) 콩과식물(질소고정식물) 식재했었다.

- (5) 농장 내 자원순환 및 관계지향(유기질멀칭 등) 농사방법을 이용했었다.
- (6) 윤작 방법을 이용했었다
- (7) 휴작 방법을 이용했었다
- (8) 기타(\_\_\_\_\_)

16. 로컬푸드 출하이전 병충해가 들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퇴치했었습니까?

- (1) 자연살충제를 이용했다 (복수선택 가능함)
- (2) 화학살충제를 이용했다
- (3) 천적을 활용한다
- (4) 농작물의 자생면역력을 이용 그대로 뒀다
- (5) 기타(\_\_\_\_\_)

17. 로컬푸드 출하이전 1년 동안 몇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셨습니다?

(작목수: \_\_\_\_\_ 개, 작목명: \_\_\_\_\_)

18. 로컬푸드 출하이전 귀하의 농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 중에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비	(1) 제초제 (2) 살충제 (3) 기타농약 (4) 화학비료 (5) 종자 (6) 퇴비 (7) 관측비
위탁영농비	(8) 외부노동력(인건비) (9) 농기계 임대비용
영농광열비	(10) 전기 (11) 석유 등 기계동력 (12) 하우스 등 시설재료

로컬푸드 출하 이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재 귀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면담, 농사체험, 직거래, 농장초대 등의 교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교류가 없다.
- (2) 교류 하고 있다.(연평균 교류 횟수 : \_\_\_\_\_ 회 / 이유 표시: 면담, 농사체험, 직거래, 농장초대 등)

2-1. 현재 귀하는 지역 내 다른 생산자와 농사관련 의견교환, 농업상담, 농업교육 등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교류가 없다.

(2) 교류 하고 있다.(연평균 교류 횟수 : \_\_\_\_\_ 회 / 이유표시: 농사의견교환, 농업관련상담, 농업교육

3-1. 현재 귀하의 농산물을 공동체이름으로(마을법인, 영농법인, 작목반) 어떻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출하한 경험이 있다 (교류 횟수 : \_\_\_\_\_ 회 / 이유표시: 마을법인, 영농법인, 작목반)

4-1. 현재 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농업생산을 논의하는 모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 참석하지 않는다 (2)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횟수 : \_\_\_\_\_ 회)

5-1. 귀하는 농산물 생산 활동에 대한 자긍심은 어떻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1. 귀하의 자녀와 함께 영농활동을 하고 있거나 농업을 물려줄 계획이십니까?

a.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 (1) 아니오 (2) 예

b. 물려줄 생각이다 (1) 전혀 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1. 현재 귀하의 1년간 농업소득액은 얼마입니까?(총매출액 중 로컬푸드관련 소득 별도표기)

a. 1년간 총매출액 (소득액+지출액 포함) \_\_\_\_\_ 원

b. 위의 총매출액 중 로컬푸드를 통해 얻은 매출액 \_\_\_\_\_ 원

8-1. 현재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의 경영(경제적)성과는 어떻습니까?

(1) 흑자이다.

(2)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이다.(손익분기점)

(3) 적자지만, 단기적으로도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다.

(4) 적자이고, 장기적으로도 적자를 극복하기 힘들 것 같다.

9-1. [위 8-1번 문항의 (1)흑자이다 응답자만 대답해 주세요] 경영성과가 로컬푸드 출하 이전 적자에서 흑자가 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농업방식의 전환

(2)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 농자재 구입의 축소

(3)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농산물 판매 수익 증가

- (4)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득 증가
- (5) 개인적인 직거래 확대
- (6) 기타(\_\_\_\_\_)

10-1. 현재 귀하의 1년간 농업생산에 들어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년간 총 지출액 \_\_\_\_\_ 원

11-1. 현재 농산물 생산 시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괄호 안에 순번표시(1~4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영농자재비 - 농약, 화학비료, 종자, 퇴비 ( )
- (2) 위탁영농비 - 외부노동력(인건비), 농기계 임대비 ( )
- (3) 영농광열비 - 전기, 석유 등 기계동력, 시설재료 ( )
- (4) 관측비 - 유통비, 택배비, 포장재 구입, 물류비, 홍보 ( )

11-2. 로컬푸드 출하가 직접적 계기가 되어 지출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1.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가격은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1. [위 문항의 12-1. (3)~(5) 응답자만 대답해 주세요]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단계별 유통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서
- (2)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을 함께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 (3) 내부 생산자들과 적정한 가격을 논의해서 책정할 수 있어서
- (4) 농산물 단가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 (5) 기타(\_\_\_\_\_)

14-1. 현재 귀하의 영농방법은 무엇입니까?

- (1) 내 방식대로(주변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방식과 유사)
- (2) 권장 기준에 맞는 농약, 비료 사용방법



-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기준 정도 방법 (저농약 친환경방식 포함)
- (4) 무농약 친환경 인증 기준 정도 방법
- (5) 유기 친환경 인증 기준 정도 방법
- (6) 농장 내 자원순환 및 관계지향 농사방법

15-1. 현재 귀하는 농경지 토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1) 유기질 퇴비를 이용했다. (복수선택 가능함)
- (2) 미생물(EM) 활용
- (3) 토양경운과 비료 사용
- (4) 콩과식물(질소고정식물) 식재
- (5) 농장 내 자원순환 및 관계지향(유기질덮짚 등) 농사방법 이용
- (6) 윤작 방법 이용
- (7) 휴작 방법 이용
- (8) 기타(\_\_\_\_\_)

16-1. 현재 귀하는 농작물에 병충해가 들면 어떠한 방법으로 퇴치하십니까?

- (1) 자연살충제 사용 (복수선택 가능함)
- (2) 화학살충제 이용
- (3) 천적 활용
- (4) 농작물의 자생면역력을 이용 그대로 둠
- (5) 기타(\_\_\_\_\_)

17-1. 현재 귀하는 1년동안 몇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작목수: \_\_\_\_\_ 개, 작목명: \_\_\_\_\_)

18-1. 현재 귀하의 농장 외부에서 들여오는 자원 중에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비	(1) 제초제 (2) 살충제 (3) 기타농약 (4) 화학비료 (5) 종자 (6) 퇴비 (7) 관축비
위탁영농비	(8) 외부노동력(인건비) (9) 농기계 임대비용
영농광열비	(10) 전기 (11) 석유 등 기계동력 (12) 하우스 등 시설재료

### Ⅲ.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성   ② 여 성
2. 귀하의 연령은? (                                    )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사별/이혼/별고 등)
4.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초졸이하   ② 중졸이하   ③ 고졸이하   ④ 대학졸업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거주지는? ( \_\_\_\_\_면(읍)\_\_\_\_\_리)
6. 귀하의 농사경력은 몇 년입니까?(                    년)
7. 귀하의 경작지 규모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밭	논	과 수 원
경작지 규모	평	평	평
재배 작목명			
수확량(톤)			

8. 귀하의 경작지에 영농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작가족: \_\_\_\_\_명, 근로자: \_\_\_\_\_명)
9. 귀하는 귀농자이십니까? ① 예(귀농년차수: \_\_\_\_\_)   ② 아니오
10. 귀하는 완주군 로컬푸드 의 어느 곳에 언제부터 출하하고 계십니까?(복수지원 가능)

구 분	①용진직매장	②효자동직매장	③모악산직매장	④건강한 밥상
출하년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11. 로컬푸드생산자 교육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1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로컬푸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농산물 이동거리축소    ②유통단계축소    ③소비자와의 신뢰관계  
④친환경적 농업    ⑤지역생산, 지역소비

13. 귀하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경작지와 직매장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 \_\_\_\_\_면(읍)\_\_\_\_\_ 리 / 경작지-직매장 거리 \_\_\_\_\_km)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